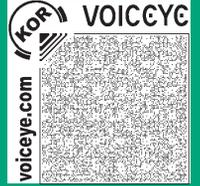


말이 되고 불씨가 되자

2014년 여름



노들마라톤 2014

노들장애인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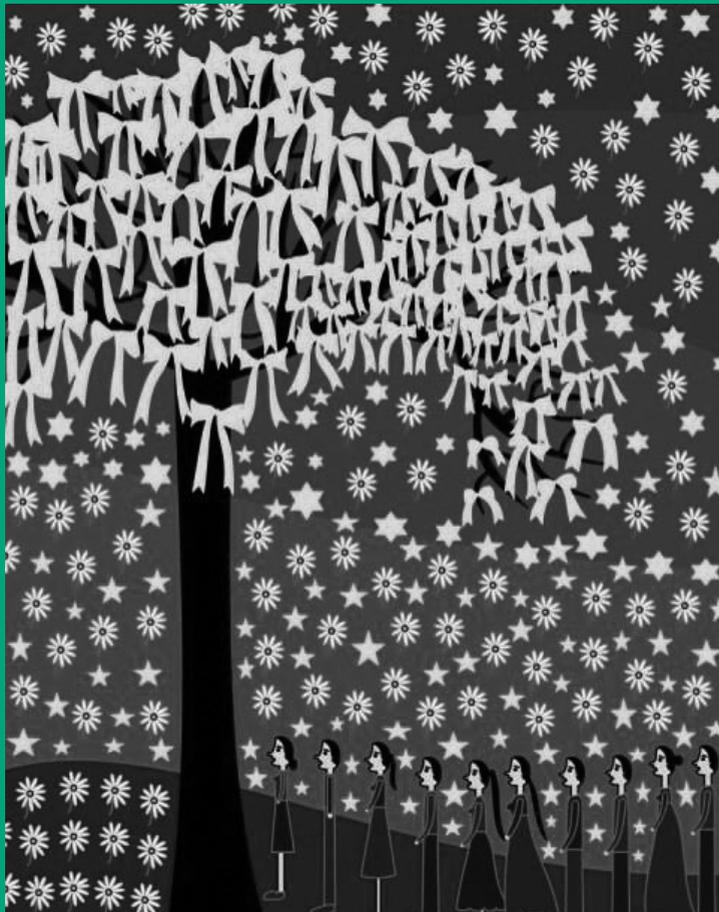
노들장애인지립생활센터

장애인지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지립생활센터「판」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우리는 노란 리본의 기적을 바랐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국화, 국화꽃
그 수많은 국화들은 온 세상에 슬픈 눈물이 되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반성이 되었다.

그림과 글 · 이은애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만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입니다.

제 101호 2014 · 7
만든곳 노들장애인야학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자립공장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명학 김지에 박세영 배승천 심정구 정민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 · 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04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을 맞이하여,
송국현 학생을 기억하며
- 07 지금 국현 씨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 10 송국현 아저씨 장례위원이야기
- 14 [장판 핫이슈] 그 어떤 죽음도 1/n이 될 수 없다
- 18 25만원 노역일기
- 24 노들야학도 버스 타고 모꼬지 갑시다!
- 28 또 하나의 기우제가 시작됐다

- 32 [형님 한 말씀] 어지러운 난국
- 33 노들 새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니다」
- 36 [노들아 안녕] 조아라
- 39 [노들아 안녕] 김선아
- 42 [교단일기] 교육과 탈교육, 그 경계에서 '노란 들판'을 꿈꾸다

- 44 [나쁜 행복을 말하다] 진심이 아닌 가짜 글
- 47 [성북구 개척시대] 센터판의 시작 그 마지막 이야기
- 50 [뽕글뽕글 활보상담소] 딜레마
- 52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긴급 : [명사] 긴요하고 급함
- 55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이경민 님

- 57 제1회 분홍배문학상 공모전
- 58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2014 인권연극제
- 60 인권아, 학교 가자
- 64 도움반에서 드리는 편지
- 67 노들텃밭 - 농사 2년차
- 68 '별 거 아니다'에서 별 걸 다 했다

- 71 아픈 상태로 건강하게 살기
- 75 HIV 감염파티
- 78 씩씩한 후원주점
- 83 우리, 자립했다!
- 86 우리도 따라왔어요^^

- 88 [노들책꽂이] 밀양을 살다
- 92 [동네 한 바퀴]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96 [노들은 사랑을 싣고] 김두영 야학 동문을 만나다
- 100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변방연극제 임인자 예술감독
- 103 고마운 후원인들

[]

“저는 난생 처음으로 출구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황금 해안에서 인간이 쓴 두 발의 총을 맞고 인간세계로 붙잡혀온 원숭이. 그때 불에 남은 흉터로 ‘빨간 페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우리에게 갇힌 상태로 살다 보니, 아니 살려고 하다 보니 인간처럼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인간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학술원에 자신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에 이릅니다. 카프카의 단편 소설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으로 기억합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언니들과 노들 사람 몇몇이 모여 ‘탈시설 운동’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물론 탈시설 운동이 무리지어 직접 행동으로 이뤄진 것이 저 무렵이었지, 탈시설 운동의 역사는 깁니다. 당시 ‘탈시설 운동’에 걸맞은 슬로건을 만들겠다고 이 말 저 말 끌어와 억지 조합을 해보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저런 제안 끝에 슬로건은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로 정해졌습니다.

“슬그머니 달아나라”라는 멋진 독일어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달아났습니다. 자유란 선택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전제로 한다면, 저에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빨간 페터의 표현처럼 ‘자유’는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말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고 많은 이가 말하니까요. 전 세계 인류의 기본권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자유’이지만, 누구나 알 듯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자유가 부족한,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웅졸한 저는 애꿎게도 이런 ‘자유’를 좀 미워했

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자유란 우리가 지향하는 거대한 덩어리의 단어, 원초적인 개념의 단어라는 것을 뒤늦게 어렵풋하게나마 깨우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자유롭기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배우기도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 하나의 실천들이 자유를 구성합니다. ‘시설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이 필요하고,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 야학 신입학생이었던 송국현 님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기 인생의 절반을 보내고 나이 선이 넘어 ‘탈시설’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출구를 찾아 나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빨간 페터가 자유를 갖기 위해 계속해서 다음의 출구를 찾아야 했던 것처럼, 국현 씨는 시설에서 나온 뒤 다시 장애등급제라는 감금장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새로운 출구를 찾기 전에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 긴급구제도 요청해봤지만, 구제보다 화재가 앞섰습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광화문 농성은 700일이 넘었습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우리에게 갇히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결국 벗어나도 벗어나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망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도 듭니다만. 희망이 허망한 것처럼 절망도 허망하다 했으니, 새로운 출구를 찾아 거대한 우리를 계속해서 찢고 나가는 수밖에요.

국현아저씨 잘 지내요. 안녕.

지금 보고 계신 이 『노들바람』은 101번째 소식지입니다. 100호는 야학 홍은전 선생님이 정리한 노들의 스무 해 이야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책을 읽어주시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노들바람은 지금껏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꾸준히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을 맞이하여

노들야학 준호

송국현 학생을 기억하며

마주했던 사람들의 죽음에 괴롭고 괴로운 마음을 이끌고 투쟁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 만큼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송국현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다. 송국현 동지, 야학의 학생이기도 했고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이어온 그가 420을 며칠 앞두고 4월 17일 사망했다. 420투쟁 실무기획단은 4월 16일까지만 해도 4월 고속버스 타기 투쟁을 위해 4월19일 대시민선전과 행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행진을 축제처럼 많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차별과 관련된 스티커 붙이기와 버스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송국현 동지의 죽음으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 송국현 동지 추모결의대회로 진행하였고 반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투쟁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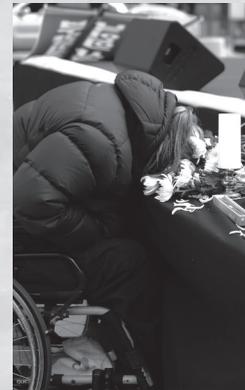


어오는 그를 처음 본 것이다. 일단 야학 학생인지 잘 모르겠고 그의 행동으로 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지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인지 학생인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그가 입은 옷들이나 덥수룩한 수염에서 '시설'에 있었다는 느낌이 묘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것이 내가 본 송국현 동지에 대한 첫 기억이다. 4월 들어서는 야학에서 급식을 먹을 때 불안하게 식판에만 눈길을 두는 그가 안쓰러워 자리며 의자며 챙겨주었던 기억이 있고 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배치표를 보고 그가 탈시설 장애인이며 아직 일상에서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4월 16일 밤부터 새벽에 이르는 시간이었다. 노들음악대가 수원역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화제에 참석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다. 손을 소독하고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에 들어가 면회를 할 수 있었다. 전신에 화상을 입

내가 송국현 동지를 인식한 네 번의 순간은 이러하다. 3월 어느 날, 휠체어로 미어터지는 야학 복도 끝 화장실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느릿느릿 걸

고 눈만 내놓은 채 거의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예전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좁은 병원벤치와 계단을 전전하며 생각은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다가 또 최악의 상황을 그리곤 했다. 그가 준혁이형처럼 또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준혁이형만 생각하면 그 착하고 순하고 동글동글한 눈과 얼굴이 생각난다.



달력을 보지 않고는 그 이후의 일정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는 그 다음날 새벽 떠나버렸고 우리는 쫓불을 들고 그의 장례식장을 지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회의를 하고 현장수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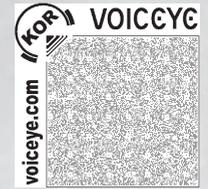
조직하고 1인 시위를 하였으며 행진과 집회와 몇 번의 1박2일 투쟁을 치렀다. 송국현 동지와 함께 활동하던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의 눈물 섞인 발언들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게 했고 장애인들의 행진을 막아서며 복지부 장관의 집을 철통 경비하는 경찰과 뒹굴고 나가떨어지고 잡혀가며 시간은 바람같이 가버렸고 장례는 광화문 광장에서 26일 만에 치러졌다. 나는 420투쟁이 끝나자마자 급성편도염으로 입원하여 병원신세를 지

게 되었다.

나는 무기력하고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일까, 집회 집회 집회 집회로 이어지는 한 주의 일정표를 보면 기가 막혀 속으로 욕을 하다가도 집회 집회 집회 한 번 안 나오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너무나 무관심한 모습에 그들에게 화가 치밀기도 한다.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 영정사진을 보며 속으로 울기도 하다가 송국현 동지의 일을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만 기억을 짜내려고 안달하는 것 같다.

엇저께 같이 술을 마신 내 친구 상용이는 야학 학생이다. 나랑 동갑이다. 나는 그가 잘 살 수 있기를 빈다. 상용이는 술을 먹은 다음날 나한테 "준호야 고맙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뭐가 고마운지 잘 모르겠다고 그에게 애길 했지만 그가 나에게 말한 맥락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고맙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학 학생들과 평등하게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다. 송국현 동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송국현 학생"이라는 표현을 썼다. 나와 인권교육을 함께 가는 김동림형도 야학의 학생이다. 혼자 집회를 잘 나가기보다 그들과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함께 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투쟁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 때로는 함께하는 게 치사하고 많이 힘들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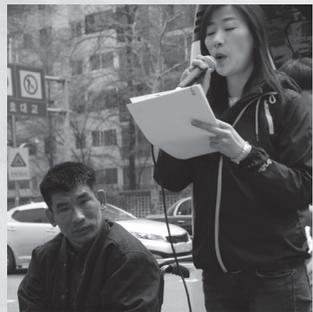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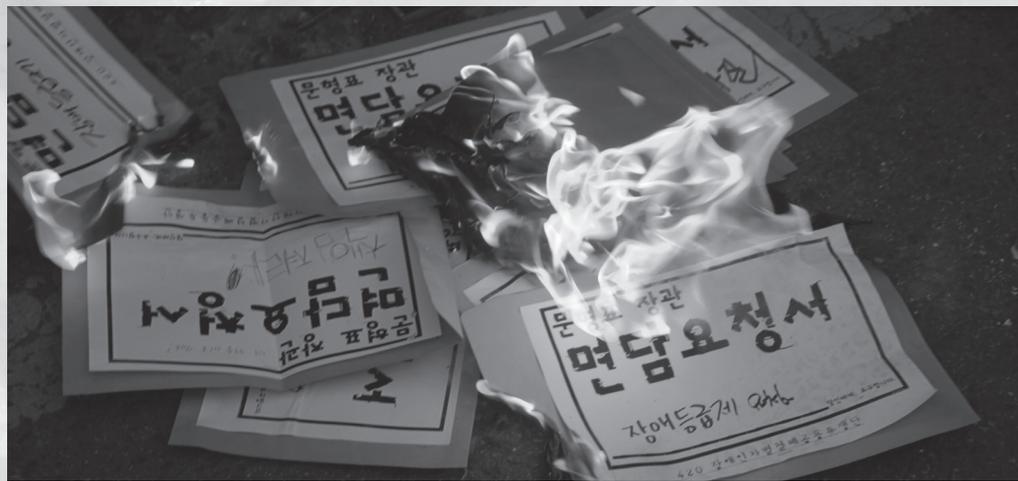
며칠 전 전화번호부에 있던 송국현 학생의 전화



지금 국현 씨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번호를 지웠다. 투쟁이 있기 전 보내는 청솔1반 그룹 전화번호부 명단에 여태 그의 이름이 있었다. 송국현의 죽음에 대해 추모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문자메시지 발송명단에도 항상 송국현의 이름이 있었다. 이제까지는 항상 그를 제외하고 보냈는데 며칠 전 그의 전화번호를 지웠다. 그를 추모하고 이제는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화번호부를 정리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나에게

그를 보낸 투쟁의 기억보다 그를 본 기억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다.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 보지 않았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형과 잘만 하면 친구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학교 인권교육을 나가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동네에서 함께 살자, 친구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와는 친구가 되지 못했다.



아,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장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장미를 기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검붉은 색깔의 어린 장미가 가까이서 눈에 띄는데?

아, 우리가 장미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왔을 때, 장미는 거기에 피어 있었다.

장미가 그곳에 피어 있기 전에는, 아무도 장미를 기대하지 않았다.

장미가 그곳에 피어있을 때는, 아무도 장미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 출발도 한 적 없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하지만 모든 일이 워낙 이렇지 않았던가?

- 베르톨트 브레히트 -

전(우리는) 앞으로 한없이 국현 씨를 그리워하겠지요.

그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옛가락처럼 휘어져 맘 깊은 곳에서 튕기고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수업을,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서도 교실의 닫힌 공간이 힘들어 안절부절 하다가 결국 밖으로 나가버렸던 첫 미술수업. 바로 다음 주에 만난 그는 교실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환하고 반짝거리는 얼굴로.

그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작은 스케치북에 한가득 그림으로 채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자기 이름만이

아닌, 다른 글을 읽고 쓸 날을. 어쩔 새로 사귀게 될 여자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배우고 싶어 했고, 사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노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을 함께할 거라 조용히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노들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네들이 1, 2년 해보고 말 일을 12년이 걸리더라도 변함없이 응원하고 함께하는 곳이 바로 노들이니까요.

국현 씨는 그리기를 좋아했을까요. 만들기를 좋아했을까요. 빨간색을 좋아했을까요. 노란색을 좋아했을까요. '송국현'이란 이름 세 글자 말고 어떤 글씨를



써보고 싶었을가요. 혹시 짧은 스포츠머리 말고 다른 머리를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함께했을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린 모두 각자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매일 그의 사진 앞을 지킵니다. 어떤 선생님은 매일 거리로 나가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드립니다. 어떤 학생은, 어떤 선생은 매일 그가 가고 싶어 하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배움의 길을 교실과 거리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례식 날. 시설에서 나올 때부터 국현 씨와 함께 하셨던 활동가 선생님이 목 놓아 울던 모습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사비로라도 활동보조를 더 고용했었더라면, 아님 활동가의 집에서 자게 했더라면... 그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한없이 곱씹으며 너무나 미안하다는 그 분의 말씀이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어째서 그 분이 미안해 해야 하나요.

국현 씨에게 3급 딱지를 주곤, 매정하게 귀 막고 눈 막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과하라며 몇 날 며칠을 울부짖던 선생님이 아직도 사과조차 않는 복지부 장관을 보며 깊고 깊은 밤 국현 씨에게 미안하다 말하던... 그 속내를 무슨 수로 달랠 수 있을까요. 정작 국현 씨를 사지로 내몬 국가는 사과조차 않고,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할까요. 설혹 국현 씨가 그곳에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10살짜리 꼬마도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현 씨에게 활동보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물으면 당연하단 표정으로 "필요해요!" 대답합니다. 10살짜리 꼬마도 '인권'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

구나 가지는,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것을 압니다. 인권의 주체인 한 나라의 국민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려나 보호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싸우다 죽었는데 어째서 국가는 고개 숙여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까.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 혼자 자다가 몇 번이고 죽을 뻔 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하는 장애인 친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뒷골이 바짝바짝 시립니다. 그가 혼자 자는 날이면 친구들은 돌아가며 새벽에 전화를 겁니다. 혹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낄낄거리던 친구가 내일이 되면 없어서 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네들은 알고 있을까요.

국현 씨의 죽음에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당장 나의 죽음도, 내 친구의 죽음도, 내 가족의 죽음도 그와 다르지 않을 테니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더 뜨거운 죽음이 있어야만 그네들의 차가운 머리가 반성할 수 있을까요. 열도당토 않는 기준으로 인간에게 급수를 매기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차등을 두고 나눠 갖게 하는 장애등급제. 가족에게 장애의 책임을 물어 교묘히 국가의 의무를 가족에게로 떠넘기는 부양의무제. 치솟는 불길처럼 꺼질 줄 모르는 두 개의 화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건 눈을 부라리며 또 누군가의 목숨을 가져가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주세요. 이 땅의 모든 국현 씨. 제발 죽지 말고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먼 곳에 계신 국현 씨가 다시는 본인과 같은 동지를 만나지 않도록. 언젠가 다시 만날 때 이곳엔 드디어 그 드세던 불길이 사라

졌고, 장애해방의 날이 왔다고, 바로 내가 쟁취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다왔다고, 사람답게 먹고, 사람답게 자고, 사람답게 실컷 사랑하다가 왔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앞으로 한없이 국현 씨를 그리워하겠지요. 우리 송국현을 잊지 말아요. 절대.



국현 씨에게
국현 씨. 우린 꼭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서
더 재밌는 미술 수업을 오래 오래 함께해요.
- 미술반 정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672일차,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014년 420을 보냅니다

노들야학 명희

송국현 아저씨 장례위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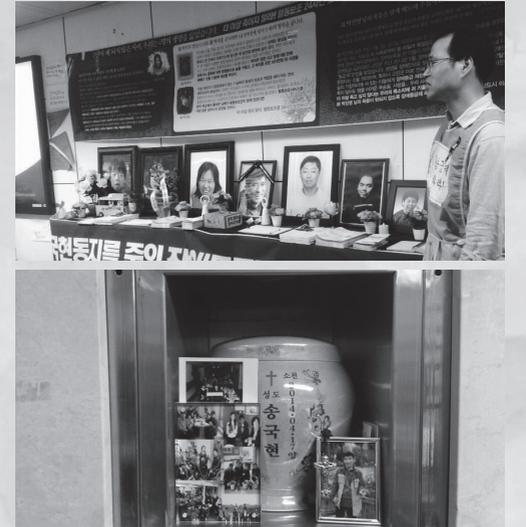
오늘같이 바람이 불어올 때면 아빠 생각이 난다. 정확히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아버지는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빠가 잡은 기타 줄 위의 손톱과 가끔 잡았던 지팡이 아래에 닳은 고무, 아령을 하며 흥얼거리던 노래자락이 내 입속에도 흐른다. 충무로에서 달력을 만들던 달력쟁이 아빠. 조금 더 많은 기억을 남겨둘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떠났다. 이렇게 미풍이 불어 내 등을 밀어 줄 때면 일찍 떠난 당신들이 미안한 마음에 나를 격려해 주고 있노라고 생각한다. 이젠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당신에 대한 미안함과 덜 외롭게 살아가기 위한 내가 만든 동화 속 이야기의 시작이다. 노들야학에 온 것을 꿈으며 이제 다섯 손가락을 접을 수 있는 해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을 보낸다. 2014년에 온 국현아저씨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이다. 글을 모르고 길을 모르고 걸을 줄 모르고 자립하여 사회에 나왔던 그의 주위는 보내야 할 것보다 채워야 할 게 많았다. 불이 나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넘어서지 못한 형은 침대 위에 그을린 채 발견되었고 그 이후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호흡기로 부여잡고 있었다.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형은 떠났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과 반포 보건복지부 장관 집을 각자의 삶의 공간보다 더 많이 오갔다. “왜 죽었네요? 이 사람. 당신들 여기 무슨 일인가요?”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정부에서 당연히 지원 받아야 할 제도를 장애등급 3급이라고 해서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죽었거든요.” 이 말이 처음 마이크를 잡았던 장례 1일차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 추모제 때보다 덜 떨릴 수 있게끔 몇십 번을 반복했을 즈음에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했다. 한 달이 넘는 많은 밤들이 지났고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은 어느덧 손님이 끊겼다. 그렇지만 이 공간은 여전히 국



현아저씨를 함께 지키려는 자들이 남아있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 함께 떠나보내야 했던 몇백 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분향소가 시청광장에 세워졌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죽음인 국현형의 분향소를 국가인권위 앞에 차렸다. 그 공간은 슬픔에서 멀어지려 하지 말아야 함을 직면하게 해주는 공간이었다. 함께 살아야 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정부 당국은 사과해야 한다. 광화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에 생긴 9개의 영정. 국현아저씨는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다. 아직 함께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살아있는 생애,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는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많이 한 말,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하게 될 이 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 수는 없는 건가요? 당신들은 이 물음에 대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 송국현 동지 관련 경과 보고

1. 송국현 씨 상황 : 23년간의 시설생활에서 자립을 시작

- 53세. 남성.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 독거. 기초생활수급자.
- 1986년 사고로 장애. 1990년~2013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
- 2013년 10월 시설에서 퇴소하여 서울 성동구 자립생활 체험홈(탈시설인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에서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시작.
- 송국현 씨는 일상생활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특히 생활시설에서 퇴소하여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조차 받지 못하였음. 월 24시간의 가시간서비스 이외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던 상황.

2. 화재 사흘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긴급지원 거부 당함

3. 화재 사건 경위 : 불려도 대답 못 하고 열린 문으로 탈출 못 해도 3급

- 119가 와서 침실에 쓰러져있는 송국현 씨를 발견하고 구출하였으나 이미 전신 30%에 3도 화상을 입고, 얼굴과 가슴과 사지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음.

4. 국민연금공단의 공식적 사과를 촉구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센터장이 사과함. 대표단은 센터장의 사과를 공문으로 요구하며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과 공식 사과를 요구함.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면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

5. 보건복지부 국장 면담을 통해 장관 공식 사과를 촉구

-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및 공식 사과 요청에 대해 복지부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음.
-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는 투쟁을 할 것임을 선포함.

6.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집 항의방문 투쟁

- 면담요청서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경찰의 제지로 무산됨.

7. 송국현 동지 사망, 추모와 사회 촉구 투쟁 경과

- 2014. 4.17(목) 오전 6시 40분경 송국현 동지 끝내 사망.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빈소 마련. 밤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촛불추모제 진행.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동지 장례위원회> 구성, 조직.
- 2014. 4.18(금)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집 앞 '1인 시위' 돌입. 밤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촛불추모제 진행.
- 2014. 4.19(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추모결의대회' 진행. 저녁 7시 마로니에공원에서 '추모문화제' 진행.
- 2014. 4.20(일) 오전 10시 강남고속터미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대회 진행. 대회 진행 후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집으로 행진하여 규탄 집회 진행.
- 2014. 4.22(화) 매일 밤 7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집 앞 사회 촉구 촛불집회 돌입.
- 2014. 4.29(화) 국가인권위원회 앞 故 송국현 동지 분향소 설치.
- 2014. 4.30(수) 오후 2시 강남고속터미널 고속버스 타기 투쟁 진행 후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집으로 행진하여 규탄집회 및 노숙농성 진행.
- 2014. 5.1(목) 오전 10시 문형표 장관 집 앞에서 사회 촉구 대회 진행 이후 노동절대회 참여.
- 2014. 5.8(목) 오전 10시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주최 '송국현 씨 화재사망사건을 통해 본 장애등급제와 활동지원제도 토론회' 진행. 오후 4시 "가만있지 않을 거야" 행동. 인권위 분향소->시청광장->광화문농성장->정부청사->청와대 행진 및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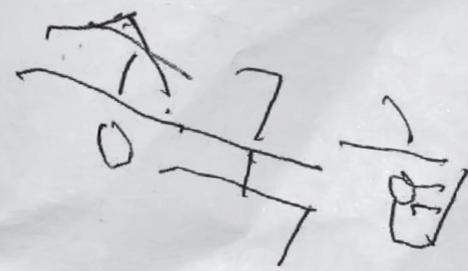
8. 보건복지부 장관면담 결과

- 5월 9일(금) 오후 3시 박경석 공동장례위원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약 50분간 면담을 진행.

- 장애등급제로 인해 활동지원을 못 받고 사망한 송국현 씨의 억울한 희생에 대하여 공식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장관은 유감을 표명. 송국현 씨의 장애등급 심사와 판정과정에 대하여는 조사하기로 함.
 - 활동지원 장애등급 제한에 대한 즉각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장관은 당초 내년에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올해 내로 활동지원 신청 대상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고, 이후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에 대하여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하여 장관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의 논의에 장애인계를 배제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하여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변함.
- ※답변을 공문으로 줄 것을 약속했으나 2014. 6.23 현재까지 공문 오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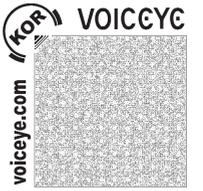
9.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은 올해 8월 21일 2주년 맞이합니다. 그 이전으로도 이후로도 함께 살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할 겁니다.



그 어떤 죽음도 1/n 될 수 없다

장판
하이슈

노들야학 민구



큰 일이다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숨송'이 아니다. '쌔애앵 쌔애앵' 지나간다. 보통 아침을 깨우는 알람소리에 힘겹게 몸을 뒤척인다. 요즘 부쩍 살이 찌서 그런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시간을 확인하곤 이내 곧 잠이 든다. 두 번째 알람소리가 요란하다. 이미 예상한 일이다. 핸드폰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 손으로 여유롭게 알람을 끈 후 다시 잠이 든다. 세 번째 알람이 울린다. 그제야 부스스 몸을 일으킨다. 옆에선 아내가 씩씩거리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치 죽은 듯, 영원히 안 일어날 것처럼 숙면 중이시다. 님 쫘 짱인 듯.(엄지 척!)

힘들게 일어나 하늘 한번 쓱 쳐다보고 별이 좋으면 세탁기를 돌린다. 나름 남향인 집인데 별이 귀하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이면, 난 제일 먼저 빨래가 떠오른다. 결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행동습관이다. 빨래를 하고 어젯밤 먹은 야식의 잔재를 처리하고 도시락을 싣다. 그때쯤이면 아내도 슬금슬금 일어나고 우리는 사이좋게 화장실을 공유하며 출근준비를 한다. 109번 버스를 타고 마로니에 공원에 내리면 언제나 그렇듯 할머니 한 분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로 향한다. 지금부터 시작! 컴퓨터 화면 바라보다 회의하고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간간이 집회 나가면 하루가 후딱이다. 다시 109번 버스를 탄다. 원래 내려야 하는 미아초 앞에서 안 내리고 한 정거장 전에 내린다. 나름 운동을 하기 위한 핑수다. 땀 빼질 흘리며 집까지 걸어들어 온다. 밤이 깊어진다. 스무 번 남짓 야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먹는다. 내가 한 운동은 똥가 싶다. 이걸 마치 피자 치킨 와규와구 먹고 양심상 다이어트콜라 마시는 격이다. 씻고 잠이 든다.

■ ■ 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 큰일이다.

나만 그런 것 같진 않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것 같다. 난, 체감 시간... 10시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잊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잊고 살아간다. 티비 뉴스를 보다보면 어김없이 황당한, 안타까운, 가슴 쓰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아이고, 이를 어찌, 어떡하니..." 입 밖으로 감탄사 콤보를 내뿜다보면 어느덧 다른 뉴스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 속에서도 흘러 나간다.

세상이라는 빠르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깔려 신음하다 구구절절한 사연만을 남긴 채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아니, 듣지 않는다. 고속도로 위 대형 전광판에 쓰인 오늘의 '사망자 수'처럼 이들의 죽음은 나에게 그저 숫자로 남을 뿐이다.

■ ■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온 민중을 집단공황상태로 몰아넣은 세월호의 침몰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KBS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참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한다.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 이 발언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다. 사람의 목숨을 갖고 어떻게 저울질 할 수 있단 말인가.

분노한 유가족은 전남 진도에서 서울까지 경찰의 제지를 뚫고 상경했다. 그리고 KBS 앞 길바닥에 주저앉아 사장의 공개사과와 보도국장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와대로 가려 했지만 길은 이미 경찰에 의해 철통 수비되고 있었다.

죽은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경찰에 항의하는 유가족의 절규와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 또한 비통한 심정이 된다.

어떻게 KBS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일까 싶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느낀다. 매일 반복되는 안타까운 죽음 앞에 나 역시 그들의 죽음을 한낱 숫자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았던가. 하나의 죽음이 숫자 '1'로 표현될 때 그 안에 있는 수천수만의 사연은 생략된다.

■ ■ 그 어떤 죽음도 1/n 될 수 없다.

이번 지진 재해의 사망자는 1만 명, 어쩌면 2만 명을 넘어 버릴지도 모른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도, 표제가 되는 것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수뿐이다. 그렇지만, 이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자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자, 8만 명 이상이 죽은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과 비교하면 좋았던가, 그런 식으로 숫자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은 사망자에게 모독이다.

사람의 생명은, 2만분의 1이나 8만분의 1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있었다'라는 것이다. 본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니까.

재해지역의 인터뷰를 봐도, 모두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내가...", "아이가..."일 것이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몇 만 명 죽는 것보다, 자신의 아이나 가족이 한 명 죽는 것이 훨씬 괴롭고, 깊은 상처가 된다.

잔인한 말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 10만 명 죽어도 100만 명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진 재해 피해의 진짜 '중량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만 가지의 죽음에 각각 몸을 찢긴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슬픔을 지금도 품고 있으니까.

- 기타노 타케시 감독,
일본잡지 <주간 포스트> 2011년 4월 1일자 칼럼 '21세기 독 이야기 특별편' 중에서

그렇다. 수많은 생명의 죽음을 하나의 비극적 사건으로 통 칠 수 없다. 현재까지 293명의 빼아픈 생명을 앓아간 세월호 사건 역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이 293건이나 한꺼번에 저질러진 대참사이다. 희생자 293명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추억을 간직한 가족과 지인이 받은 깊이를 가능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까지 포함한다면, 아니 남한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민중이 받은 충격과 집단 공황상태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은 절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

아래의 표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밝힌 지난 한 달간 가난, 장애 등으로 자살했거나 시도한 사건을 정리한 표이다.

| 날짜 | 장소 | 내용 |
|-------|--------|--|
| 2. 25 | 제주 | 회사에서 해고된 70대 남성이 파출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상담 중 자살 시도 |
| 2. 25 | 강원 영월 | 변변치 않은 직업에 생활고를 겪어오다 최근 개업한 가게마저 어려워진 30대 모텔에서 투신자살 |
| 2. 26 | 서울 송파 | 팔을 다쳐 일하지 못해 생계를 꾸리지 못하던 중년 여성이 집주인에게 집세와 공과금 봉투, 유서를 남긴 뒤 두 딸과 자살 |
| 2. 26 | 강원 삼척 | 취업을 준비하였으나 여의치 않던 30대 모텔에서 자살 |
| 2. 27 | 강원 삼척 | 신병을 비관한 50대 여성 자택에서 자살 |
| 3. 1 | 서울 마포 | 지병이 있던 60대 남성 집주인에게 유서와 화장비용 남긴 채 자살. 도로명 주소 착오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함. |
| 3. 2 | 서울 강서 | 암으로 택시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린 50대 부부 동반 자살 |
| 3. 2 | 경기 동두천 | 생활고에 시달린 30대 여성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투신 |
| 3. 3 | 경기 광주 | 40대 남성 지적장애 있는 딸, 아들 데리고 자택에서 자살 |
| 3. 4 | 서울 성북 |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온 70대 노인 자살 |
| 3. 4 | 전북 익산 | 남편과 별거해 두 아이와 함께 살던 30대 여성 경제난으로 아이들 데리고 자살 시도 |
| 3. 9 | 서울 강남 | 90대 노모를 모시고 살던 60대 남성 자녀가 취업해 수급비가 끊겨 자살 |
| 3. 9 | 서울 강남 | 연예인 우봉식 씨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 난에 시달려 자살 |

| | | |
|-------|-------|--------------------------------------|
| 3. 12 | 광주 서구 | 생활고를 비관한 40대 여성 자살 시도 |
| 3. 13 | 광주 북구 | 발달장애 아동 키우던 30대 부부 유서 남긴 뒤 아이 데리고 자살 |
| 3. 20 | 경남 창원 | 수급비 삭감 당한 40대 남성 분신자살 시도 |

이들의 죽음에 얽힌 사연을 단 한두 줄로 정리해 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건 가난한 이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고장 난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OECD Health Data 2014'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 연속 1위다. 그리고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까지의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나 심장질환, 교통사고도 아닌, 바로 자살이다. 자살은 40대와 50대에서도 사망원인 2위이다. 연간으로는 1만 4천 160명, 하루에 38.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자살 공화국'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다.

어떻게 하면 고장 난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을까.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벼랑 끝으로 내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은 대한민국이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명확한 건, 지금의 대한민국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경쟁과 속도, 효율과 성장을 중요시 하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평등과 인권, 분배와 자유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들이 원하는 세상은 장애인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노들은 노들의 방식으로 투쟁하고 공부하며 살아간다. 더 많은 사람이 노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별 거 없다.

- 32년 만에 야학을 통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수빈 씨가 처음으로 저상버스 탔을 때의 설렘을 더 많은 장애인이 느꼈으면 좋겠다.
- 돈 벌기 위해 취직한 공장에서 골프채로 맞아가며 일하던 태일이형이 탈출하다시피 도망쳐 나오지 않도록 장애인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남옥누나의 휠체어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앞니가 몽땅 부러지지 않도록 안전한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야학에서 경남누나가 짜장면 시켜 먹고 거스름돈 잘 받았는지 세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국현이형처럼 혼자 사는 집에 불이 나 녹아내린 벽지에 온 몸 화상을 입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할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 야학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져 배 곡아가며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 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쟁하면 할수록 쌓이는…… 벌금. 그것이 쌓이고 쌓여, 또 다시 지명수배가 떨어진 박 경석 교장샘. 수배자로 살던 어느 날, 갑자기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데… 때는 바야흐로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란 작자가 하루 5억원씩 탕감 받는 ‘황제노역’을 살던 시절이었다. 아래는 허재호 씨가 5일 동안 25억원을 까는 사이, 5일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며 벌금 200만원 중 25만원을 까고 나온 우리 교장샘의 이야기다. <한겨레21>에도 실렸다.

3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벌금 200만원 때문에 자진 노역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나는 2012년 10월30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집에서 홀로 잠을 자다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질식사(10월26일)한 중증 장애여성 활동가 김주영의 노제를 지내면서 도로의 차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수배 상태에 있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 1급인 나를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시키지 못했다. 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리프트 차량의 이용을 요구했고 검찰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었다.

검찰청 직원들은 서울시와 경기도 의왕시의 ‘장애인콜택시’에 전화했다. 모두 “이용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서울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까지 운행하지 않았고, 의왕시는 며칠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청 직원은 “이따위 정책이 어디 있어”라며 화를 냈다. 그는 “가까운 인접 도시에 갈 때조차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장애인콜택시냐”며 소리 높였다. 검찰 직원조차 어이없어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허탈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이토록 무관심한 사회를 향해 우리는 2001년부터 13년이나 외치고 있었구나.

검찰은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나서야 나를 구치소로 옮길 수 있었다. 나를 마중하기 위해 따라온 활동

가들을 뒤로하고 구치소의 두꺼운 담을 지나 홀로 철문 앞에 섰다. 혼자 가야 하는 길은 참 외로웠다. 그러한 길이 어찌 구치소에 들어가는 길뿐이겠는가.

구치소에 들어가자마자 신원을 확인했다. 머리가 길기 때문에 묶고 있던 머리끈을 포함해 모든 물건을 맡겼다. 벌거벗고 신체검사를 한 뒤 죄수복으로 갈아입었다. 비누와 칫솔, 수건 두 장이 담긴 비닐 봉지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비장애인과 달리 나는 오줌통 하나를 더 받았다.

토요일 밤 내가 간 곳은 독방이었다. 누워서 팔을 양쪽으로 뻗으면 완전히 펼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였다. 발을 뻗고 누우면 발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칸막이 없는 좌변기가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좁아터진 공간의 좌변기는 절대 이용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양쪽 벽면은 스펀지처럼 폭신한 것으로 덮여 있었다. 처음 수감된 사람의 경우 정신적 충격 때문에 자살할 위험이 있어 이런 방에 유치한다고 구치소 관계자는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2박3일을 송장처럼 누워만 있었다.

모포는 까는 것과 덮는 것 하나씩 주어졌다. 나는 척수장애라는 사실과 장애 상태를 교도관에게 다시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욕창 때문에 수술도 몇 차례 한 상황이라 누워 있을 때 바닥에 모포 하나만 까는 것은 위험하니 침대나 매트리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단 교도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세 겹으로 겹쳐 깔 모포 위에 휠체어와 분리된 채 들려서 눕혀졌다. 독방은 원천적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내 휠체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나는 밤새 꺼지지 않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눈만 깜빡여야 했다.

3월 30일 일요일

새하얀 형광등 불빛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 두 눈에 보이는 구치소 독방의 철문 구멍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아침을 먹지 않은 채로 교도관을 불러 다시 한번 부탁했다. 정말이지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내 장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다. 괜한 동정을 받는다는 기분과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나는 구치소에서 만나는 교도관마다 내 장애 상태를 반복 설명하면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때부터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교도관들의 비웃음만 돌아왔다.

3월 31일 월요일

날이 밝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진정서를 작성해 접수했다. 교도관은 “지금 진정서를 쓴 수감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권위 직원이 나온다면 아마 당신의 40일 노역이 다 끝난 뒤일 것”이라며 기계적 말투로 접수했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막막했다.

아침에 면회 온 동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인권위에 긴급 진정을 부탁했다. 동지들은 “오늘 저녁 노들야학 수업을 아예 구치소 앞에서 현장수업으로 진행한다”고 전해주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고마웠고 힘이 났다.

면회를 마치면 의무반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드디어 의사를 만났다. 내가 요구했던 모든 것은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만난 셈이다. 그러나 그가 조치해준 것은 다른 구치소 방 환경과 똑같은 병동 구치소로의 이동뿐이었다. 여전히 나는 한 마리 짐승으로 방치됐다.

4월 1일 화요일

아침에 인권위에서 긴급조사를 나왔다. 구치소 내부의 진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외부 동지들의 긴급 진정이 받아들여져서다. 나는 인권위 조사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조사관들은 구치소 소장을 만나보겠다고 했고 내가 있는 방도 보고 갔다.

오후에는 구치소 소장을 면담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소장은 “사과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라며 “앞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얼버무렸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역 중인 방으로 옮겨졌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구치소에서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를 사다 깔아주었다. 몸도 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역 없는 노역살이는 고통스러웠다. 휠체어 없이 누워만 있는 시간은 더할 수 없이 괴로웠다. 나는 구치소 입감 첫날부터 노역 일거리를 요청했다. 봉투집기라도 시켜달라고 했으나 구치소 쪽은

“교도관님, 나는 소변 조절이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잠자는 도중에 소변이 흘러넘쳐서 모포를 적실 수 있습니다. 모포가 젖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요. 흘러넘친 소변 때문에 몸을 씻어주어야 하는데 화장실에는 가기도 힘들고 내가 씻을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야학에서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오줌싸개 교장쌤’이라 할까 쑥스럽다.)

교도관은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내일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앵무새처럼 답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직 책임자에게 지금 흘러넘친 소변을 처리하고 사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직 교도관은 “여기가 당신 집인 줄 아냐”고 고함쳤다. “벌금 내면 되지 왜 벌금을 안 내고 사람 귀찮게 하는 겁니까.”

머리가 핑 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참 옥신각신했지만 나는 그저 장애를 핑계로 엄살떨고 있는 한 명의 ‘골통’으로 취급됐을 뿐이다. 모포는 소변에 폭 젖었고 그대로 누워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번 요청했다. 잠시 뒤 직급이 조금 높은 사람이 왔다. 그는 문도 열지 않은 채 문구멍에 대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가버렸다.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 잡아서 귀찮게 하지 마시오. 경고합니다!”

경고? 귀찮게 하면 지금보다 더 힘든 곳으로 보내겠다는 뜻인가? 더 힘든 곳은 어디지? 나는 그렇게 방치된 채 2박3일을 지내야 했다. 재소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래? 개뿔이다. 인권은 무슨 인권.

일거리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 해 4만 명이 단지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형을 살고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선 그들에게 시킬 노역거리가 없어 사실상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이 한국 벌금 시스템의 웃지 못할 현실이다.

저녁에는 당뇨에 따른 저혈당 증세가 찾아왔다. 더 이상 단식을 이어가기가 버거웠다.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한 3일째 단식을 마무리했다.

4월 2일 수요일

나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벌금을 내고 5일 만에 구치소를 나올 수 있었다. 5일간의 노역 대가인 2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벌금을 납부했다.

나의 구치소 노역 소식을 듣고 126명이 '소셜펀치'(www.socialfunch.org/nofain)와 계좌이체로 무려 1084만4533원을 모아주셨다. 이 돈으로 나를 포함해 김주영 노제 과정에서 18명에게 부과된 벌금 1535만원의 상당액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탈세와 횡령으로 부과받은 벌금 254억원 중에서 5일간의 노역으로 25억 원을 탕감받았다. 나는 도로 차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벌금 200만원 중 5일간의 노역으로 25만 원을 탕감받았다. 노역을 많이 할수록 탕감액 격차가 천문학적으로 벌어지는 구조다. 그 구조의 핵심엔 야만스러운 돈 냄새를 퐁퐁 풍기며 우리를 지배하는 '법질서'의 실체가 도사리고 있다. 노들야학이 3월31일 구치소 앞에서 현장수업을 할 때 인디 뮤지션 '야마가타 트웬스터'가 불러준 <돈만 아는 저질>이란 노래가 있다. 내 귀엔 사법부를 위한 찬송가로 들린다.

벌금의 불평등은 헌법 제11조 1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위반이라고 아무리 외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구치소에 간 것은 돈이면 무엇이든 되는 현실과 제도 앞에서 너무 쉽게 '평등'을 포기한 채 살고 싶지 않아 세상을 향해 날리는 '퐁침'이었다.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곳에 있더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싶지 않은 작은 저항의 '몸부림'이기도 했다.

구치소에서 고병권 선생님이 쓴 『살아가겠다』를 읽었다. 책에는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전태일의 이야기가 나온다.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시장에 나가 등불을 들고 "인간을 찾노라"라고 한 것처럼, 나는 구치소에서 등불을 들고 "평등을 찾노라" 말하고 싶었다. 비록 혼자만의 '원맨쇼'로 치부될지라도.

장애인인권운동을 시작한 이래 법원은 내게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3차례의 벌금을 선고(2874만원 납부)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나를 비롯한 90명에게 6845만 원을 부과했다. 나를 구치소에서 꺼내준 시민들의 모금은 나를 포함해 장애인운동을 하다 벌금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연대'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모든 나', 그리고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에게 부치는 전태일의 유서처럼 '그대 영역의 일부'로서 장애인들을 받아들여주길 요청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평등과 연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아닐까.



이제 4월10일이면 또 재판이 시작된다. 김주영이 죽은 해(2012년) 12월2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박2일을 머물며 '높으신 의원님들'께 주영이의 죽음을 알리고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을 올려달라고 기자회견을 한 일 때문이다. 검찰은 공동주거침입죄로 나와 2명의 장애인을 기소했다. 이미 3명의 장애인에게는 350만원의 벌금이 부과(계속 발생 중)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인권운동 벌금 모금 : 국민은행 477402-01-195204 (박경석)

노들야학도 버스 타고 모꼬지 갑시다!

노들야학 도현 - 장기 휴직 교사

그러니까, 비밀이 하나 있다.

노들 사람들은 나를 퇴임 교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본인은 퇴임 교사가 아니다. 나는 퇴직을 하지 않았다. 휴직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 장기 휴직 교사다, 라고 주장을 하고 다닌다. ^^; 그런 본인에게 매우 임~프레시브하게 남아있는 노들에서의 기억 중 하나는 2001년도 여름에 (당시 노들 사무국이 위치해 있던) 혜화동 로터리에서 진행된 첫 번째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다.



'8-1'이라는 버스 넘버의 글씨체, 촌스럽고 엉성하게 매직으로 써서 만든 피켓, 비장애인들의 손에 짐짝처럼 들려 차례로 버스에 오르던 야학 학생 분들의 당황스러워하던 표정, 그 학생 분들보다 두 배는

넘게 더 당황스러워하던 버스 기사 아저씨, 버스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던 명학이 형님의 음성, 그 모든 것이 매우 생생하게 나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버스 타기 이후 우리는 2005년 1월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를 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을 통해 저상버스를 쟁취해냈다.

그 마지막 버스 타기로부터 어느덧 9년이 지난 2014년 1월 27일, 우리는 돌연 다시 한 번 버스 타기 행사를 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모처에 집결했다. 옛날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시내버스'가 아니라 바로 '고속버스'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수동휠체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버스를 탔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의 통로 자체가 좁아서 아예 버스를 탈 수



가 없었다. 버스를 탈 수 없는 버스 타기 행사. 하나의 패러독스. 그 이후 우리는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사전에 예매한 200장의 고속버스 표를 들고 '희망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열흘 뒤인 4월 30일에는 그 두 배인 400장의 표를 예매하여 다시 한 번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모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속버스 타기 행사는 시기별로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예컨대 7월에는 '장애인도 휴가철에 고속버스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주제로, 그리고 9월에는 '장애인도 추석에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주제로)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장애인에게는 시내버스가 아닌 고속·시외버스 등의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법 상에서 교통약자의 탑승권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예컨대 2012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출한 정책요구안의 경우에도

"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 등의 저상버스의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지? 올해 초 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이동편의증진법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뜯어보니, 현재의 법률상으로도 이미 마을버스와 전세버스를 제외한 모든 버스에는 교통약자가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법률을 마구마구 어기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힘 있게 혼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이 콩이건 팥이건 간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교통약자가 아닌 자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이동권을 '권리'로서 규정해 놓은 이유이다. 현재처럼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탑승권이 보장되지 않





으면 기차(KTX, 무궁화호)가 다니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기차가 다니는 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장애인 역시 당연히 상황과 조건과 편의에 따라 기차와 고속·시외버스 중 어떤 것을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기차와 더불어 고속·시외버스의 탑승권이 보장되면 만사 OK인

가? 그렇지 않다. 설령 양쪽 교통수단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장애인들이 조금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동을 하려고 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KTX도 고속·시외버스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좌석의 수는 제한적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동편의증진법이 (법적으로는 구역(區域) 여객자동차라고



불리는) 전세버스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바꾸어 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지역에 단체로 연대투쟁을 갈 때, 트럭이나 윙카에 다다 전동휠체어를 싣고 다니는 불편함과 생고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현재의 이동편의증진법 상으로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탑승권을 보장하고 있는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이 즉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에 추가안의 형태로 반영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탑승권을 쟁취해내야만 한다. 바야흐로 '제2기 이동권 투쟁'의 찬란한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날, 그래서 모든 버스를 장애인도 차별 없이 탈 수 있게 되는 날,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고향에도 가고 모교지도 가면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한마디 툭 던지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 아이기.'

아,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고 신나지 않은가? 그 날을 위해 우리, 7월에도 9월에도 고속버스터미널에 떼거지로 한 번 모여 봅시다!^^

또 하나의 기우제가 시작됐다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노들야학 유미



대중교통이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다. 시내버스도 그랬고, 지하철도 그랬다. 택시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도, 스쿨버스도, '대중'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만한 것이 없다. 대중, 시민, 국민 어느 하나도 '장애인' 옆에 붙어서 속 편한 말이 없다. '장애인'은 배제된 자의 대명사 같다. 대중교통이라고 불리는 고속버스에 휠체어를 탄 사람은 탈 수 없다. 대부분의 고속버스는 차체에 문이 하나, 앞쪽에만 달려있는데 이곳엔 계단이 두세 개 정도 된다. 그리고 좁다. 버스 통로도 좁다. 장애인이 휠체어 째로 들어올려져 버스에 오른다고 해도 휠체어와 함께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고속버스는, 고속버스 회사는 말이 없다. 현재 우리 버스가 이런 상태라 휠체어를 탄 고객님은 탑승이 어렵습니다 같은 말도 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으레 못 타겠거니, 불가능한 게 어디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 어디 먼 데 가겠나, 못 타도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임에도 고속버스가 아니면 이동할 방법이 달리 없는 몇몇은 '고역'을 겪어가며 고속버스를 타왔다. 방식은 대체로 이렇다. 본인 몸을 버스에 태우고,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버스 옆구리 짐칸에 싣는다. 말만 들으면 무엇이 고역이나 할 수도 있겠다. 휠체어에서 몸이 분리되는 과정 그리고 계단을 올라 버스에 오르는 과정이 문제다. 활동보조인이나 동행자가 있다면 사정은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주위 사람에게 안기거나 업혀서 버스에 올라야 한다. 버스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버스에 한 번 타는 게 이렇게 힘들다 보니 휴게소에 내려 화장실에 간다거나 구운 감자를 사먹는다거나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누군가가 내려줄 때까지 불안하게 앉아 있어야 한다. 생각만 해도 서럽다.

고속버스, 대중교통이라면서 왜 누군가는 탈 수 없게 생겨먹었나. 서러움과 분노도 크지만 불편함도 심각하다. 갈 수 없는 곳이 많은 것은 물론, 단체 여행은 꿈꾸기도 어렵다. 야학에서 모꼬지를 갈 때도 전세버스를 빌리고 트럭을 빌려서, 사람 따로 몸 따로 타고 간다. 옮겨지는 몸도 들어 올리는 몸도, 출발도 전에 기운이 빠진다. 잉~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어라.

그리하여 고속버스 티켓 200장을 예매하였다! 2014년 4월 20일 낮 12시에서 2시 사이, '서울경부'에서 출발, 도착은 내 맘대로. 한 버스 당 10장씩 팡팡 예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고속버스를 탈 수 없다는 소식에 감동하고 분개한 사람들이 버스표 사는 데 보태라며 후원금을 보내줬다. 물론 가까운 이들에겐 후원을 강권했다.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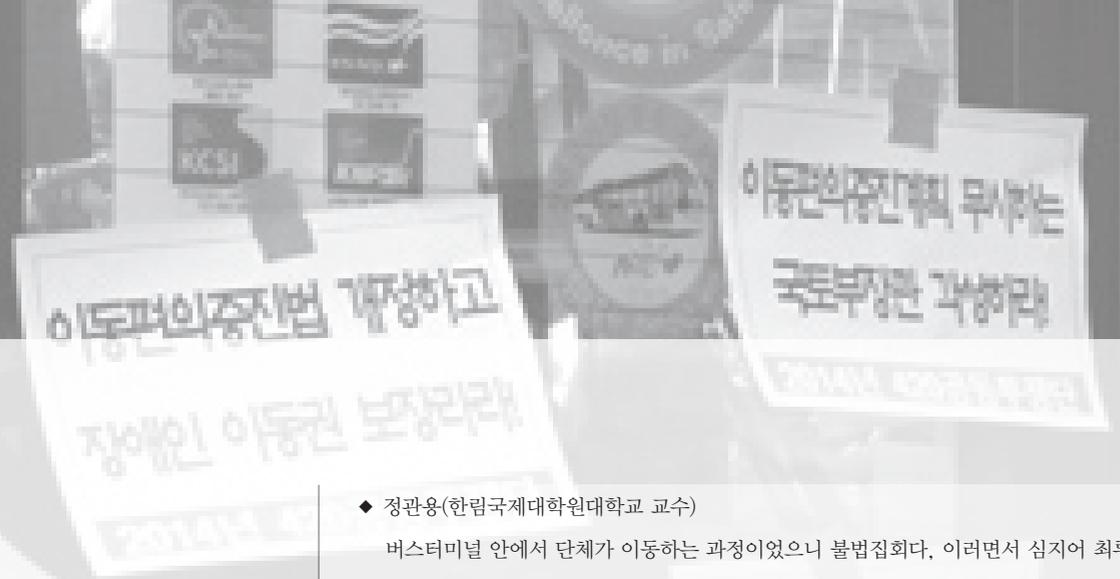
기왕 가는 김에 부산까지 가볼까? 아니 바닷길 님 뒷밭 TK 지역에 가볼까? 대구 끊고 구미 끊고, 빗꽃 보러 갈까 하며 경주도 끊고. 그렇게 20곳의 행선지를 골라 티켓을 예약했다. 그리고 맘 급한 이가 터미널에 달려가 탑승권 받권.

4월 20일 송국현 아저씨 추모제를 마치고 동승동 노들에서 하룻밤 묵은 지방 사람들 그리고 버스 타겠다고,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터미널에 몰려든 사람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이 우리 사람들로 가득했다. 무흐. 420 집회를 마치고 출발 시간이 가까워져 고속버스 승강장으로 갔다. 영정 속 국현 아저씨도 웃으며 함께 갔다. 음. 그런데...

버스 승강장엔 이미 경찰이 '막을 태세'로 여기저기 서있었다. 승강장 가운데쯤엔 방패를 든 경찰이 길을 막고 있었다. 방패 든 형광 인간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다.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안 터미널 측은 미리 승차권을 바꿔 일반 승객(?)들이 버스를 탈 수 있게 했다. 그리하여 내가 약간 걱정했던 우리 때문에 버스를 못 타게 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딱히 생기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냥 우리만 탑승권이 어딘지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또 다시, 너무나 익숙한 경찰 방패와 마주하게 되었다. 마 갱찰 니들 고마 딱 지켜버!

버스를 타려고 왔는데, 그것도 돈 주고 산 티켓을 손에 딱 쥐고 왔는데, 왜 경찰이 우리를 막는 것일까. 당황스럽다. 저번에도 그랬다. 설을 앞두고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싶다'고 버스표를 사서 왔을 때도 그랬다. 탈 수 없는 버스 구조. 수동휠체어를 타는 교장샘이 사람들 손에 들려 버스에 올라타고 나니 버스 기사석 옆에서 오도가도 못 하는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아무도 탈 수 없게 되었다. 그나마 기사석 옆에도 안전히 있을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자주 벌어져, 안전벨트 대응으로(?) 쇠사슬을 온 몸에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 고속버스 회사는 홈페이지에 요런 안내문을 남겼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휠체어와 동반탑승을 원하시는 장애인 고객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속버스 차량의 내부 구조상 휠체어 동반 탑승 공간이 없으므로 휠체어 동반 탑승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속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점 너그럽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2014 . 2 . 27



고객님 행복을 기원한다카던 이들이, 4월 20일에 경찰을 앞세웠다. 잉. 이거기야. 고객님의 저번에 당하고 또 요번에 또 용기 내 버스표를 샀는데 여전히 버스를 못 탈 상태라면, 직원들이 나와서 고객님의 죄송합니다 우리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 분수. 고객님의 범죄자 취급하며 경찰을 불렀다!



그러더니 매표사. 인간 폴리스 라인 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경찰이 농약통 같은 걸 매고 물총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게 뭐가요? 서있는 비장애인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했고, 비장애인들에 가려진 휠체어 이용자들은 앉아서 경찰이 쏘는 최루액을 피하지 못하고 맞고 있었다. 이 형광색 물총잡이들은 총을 쏘듯, 격하게 저항하는 인간들을 향해 최루액을 쏘아댔다. 얼굴에 정조준, 짹짹, 싹싹.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얼굴이 다 젖어 괴로워했다. 급하게 생수가 배달됐다. 좀 있으니 우유도 배달됐다. 물과 우유로 눈을 씻고 얼굴을 씻어냈지만 화끈한 감이 빨리 가시지 않았다. 분노 지수도 확 올랐다.

웃겼다. 버스 타겠다고 표 끊고 온 사람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쏘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지금 이거 뭐지? 하는 생각만 자꾸 되풀이 되는, 너무나 저질이어서 할 말을 잃은, 날이었다. 식상한 문구이지만 '달나라에도 가는' 이 마당에, 이 2014년에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버스 타고 싶다고 목소리를 모으는 사람-중증장애인을 향해 최루액을 뿌려대는 권력이 있다는 것. 모두 어이가 없다. 우리가 최루액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엔 장애인 시위대에 최루액을 쓴 경찰 사진이 퍼졌다. '장애인 최루액'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로 매일의 뉴스가 괴로웠던 '대중'들에게 기가 막힌 뉴스 하나를 추가했던 것이다.

4월 2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장애인의 날 최루액 이야기'가 나왔다. 요약하면 그날 경찰이 한 짓은 '고문에 준하는 인권침해'.

- ◆ 정관용(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버스터미널 안에서 단체가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니 불법집회다. 이러면서 심지어 최루액까지 발사했고, 특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이라서 최루액은 전부 눈 쪽으로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것은 사람을 붙잡아놓고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여지고요. 사실 유사한 사례,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최루액이나 최루가스를 뿌리는 것은 고문에 준하는 인권침해하다고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한 바가 있습니다.

두고 보자, 이 저질들.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가 잘 못한 게 없다.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버스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도 없었다. 그저 고속버스 타고 싶었다. 지금 못 타는 거라면, 언제쯤 탈 수 있는 버스를 갖다 놓을 것인지, 뭐 그런 설명과 약속을 해줬으면 했다. 저들은 늘 우리를 불법시위대 취급하지만, 어찌지 난 결백한 걸. 내가 버스를, 버스회사를 고소하고 싶단 말이다. 탈 수 있을 때까지 시도해야겠다. **억울해. 또 하나의 기우제가 시작됐다.**



어지러운 난국

형님
한 말씀

노들야학 명학

노들
새책

노들야학 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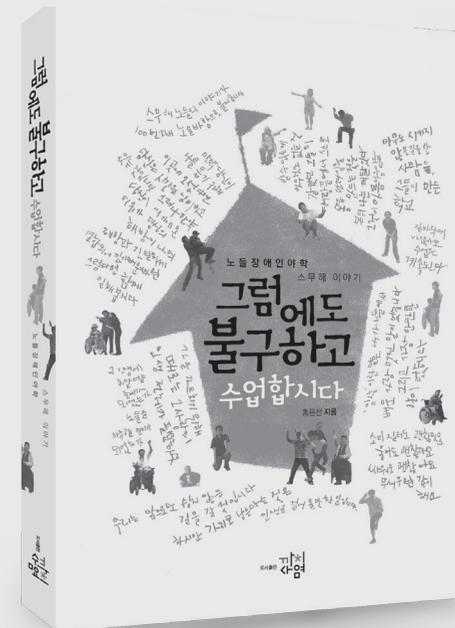


「어지러운 난국」 -노들 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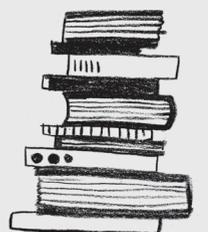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가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데 이 소중한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나 가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 빠져서, 화재로 인해서
 그리고 그외로 이 한 많은 세상을 죽음으로서 등지는 이들
 이 많은 요즘 세상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때 다가가 힘 없는 장애인, 빈민층
 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다. 또 하나
 분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보다 돈이 먼저 라고 인식하는 사회 참으로
 어이가 없고 답답한 마음이 쌓여가는 현상들을
 볼 때마다 이 사회가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거인데, 짐작도 가지 않고 마냥 분노하고, 실
 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이런 사회
 과 막강한 자본들을 가지고 이 가진 것 없는 민
 중들을 탄압하고 억누르지만, 결국은 민중들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
 이든 그 근본이 되는 뿌리는 민중들이기 때문에. 잠
 리들은 반드시 승리 하리라는 권리가 있기 에. 우
 편서 보낸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이 어지러운
 난국을 잘 넘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두둥~! 새 책이 나왔습니다.
 노들의 스무 해 이야기를 담은 노들바람 100호
 홍은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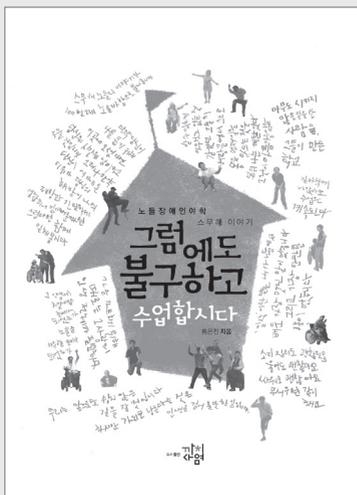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홍은전 저, 까치수업 퍼냄, 13,000원

추천사



홀린 듯 이 책을 읽어 내렸다. 읽으면서 교육 바닥에서 일하고 발언했던, 그러나 실상 무력하기만 했고 핵심에서 비껴서 있었던 나 자신을 노들의 20년 이야기가 날카롭게 후려치는 것을 느꼈다. 현장에서 빌빌대던 내 비루하고 아픈 기억들이 흩어졌고 나는 자주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어야 했다.

말이나 글로써만 동경을 피력했던 어떤 세계가 실제로 구현되어 온 이야기를 나는 노들의 20년 역사를 통해서 만났다. 교육이 무엇인지 깨물었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평등해지며, 자신의 운명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며, 어떤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나는 늘 물어왔지만, 내가 머물렀던 공간에서는 답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제도권이라 불리는 어떤 현장. 월급 받는 사람과 월급 주는 사람의 공모와 힘겨루기, 사회적 지위 경쟁의 마당으로 떠맡겨진, 학교라고 이름 붙여졌으나 배움과 상관없는 온갖 기술과 제도가 횡행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교육 불가능'이라고 하였으나 제도 바깥에서 교육은 꽃피고 있을 것임을. 그 현장이 바로 노들이었다.

거창한 대의가 아니라 그저 '살려고' 올라갔던 곳,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에 장애 인야학에 자신의 인생을 묶은 사람들이 빚어낸 뜨거운 이야기들. 우리는 불빛이 비치는 곳만이 현실이라고 말했으나 불빛 없는 곳에서 제 몸의 불을 밝혀 어둠을 밀어내고 스스로 빛이 되었던 장애인운동의 어기찬 역사를 만났다. 나는 그 속살을 읽으며 나 자신이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와 누군가의 권유로 이루어진 기대의 체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와 스스로 희망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읽었다. 첫 마음의 변심과 첫사랑의 미움, 술의 희열과 숙취가 늘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나 그들은 변심과 미움과 숙취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계단 30개를 1시간이 걸리도록 오를 때에도 바깥이 좋아서 나가는 일이 꿈만 같았던 사람들, 삼겹살에 소주를 먹을 때의 첫 느낌, 자신을 반겨 주는 사람, 운이 좋으면 뒤풀이에 걸 수도 있었던 수많은 자

리에서 그들은 희망이 되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장애인은 어느 날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었다. 자신이 언제 시설에 보내질지 모른다면 위기감을 피력하던 장애인은 맨몸으로 지하철 헤드라이트 불빛 앞에 버티고 서 있게 되었다. 누군가의 한글 실력이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늘어났던 것처럼 교사들도 천천히 진실하게 사람을 배워 갔다.



희망과 절망 사이, 시도와 패배 사이, 엇갈리는 오해들과 일치의 기억까지 끝없는 망망대해를 노 저어 가던 모든 과정이 노들의 수업이었다. 장작불 같은 학교, 먼저 붙은 토막이 불씨가 되었고, 빨리 붙은 장작은 밀붙이 되고 젖은 놈은 마른 놈 곁에 몸을 맞대어 활활 타올라 끝내 섯덩이를 녹여 나가는 노들의 나날, 교육은 교육 바깥에서 희망이 되었다. 노들처럼 살고 노들처럼 투쟁하는 곳에 그 고색창연한 이름, '교육'이 있었다.

-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이계삼



위 사진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때 서강대를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벚꽃에 눈이 팔린 저를 위해 활보팀과 광호가 나무를 흔들어서 연출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답니다. 벚나무한테 미안함과 저를 위해 연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ㅎㅎ 실제로 눈이 내리는 것처럼 정말 예뻐어요!! ㅎㅎ 아, 처음 들어와서 노들의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의 노들바람을 정독했었는데, 제가 쓰게 되다니... 막막한데요, 센터에서의 저의 일상에 대해서 써볼까 해요.

노들아, 안녕!

노들아, 안녕하세요. 노들센터 활동보조서비스사업팀 신입, 코삼(노들센터 활동보조 코디네이터 세 명 중 셋째) 조아라입니다!

올해 저를 비롯해서 노란들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도 조아라 씨가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다들 반갑습니다^^ 신입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개를 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 때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제 이름을 들으시고, 다른 데도 조아라 씨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그리고 제가 민들레센터

의 조경미 활동가의 동생이라고 하면, 저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놀라시죠.
제가 노들을 처음 알게 된 건 8년(?) 전 경미언니를 따라 놀러왔을 때였어요. 강좌도 한번 들으러 왔던 기억도 나고... 근데 아쉽게도 정말 놀러온 거라 기억에 남는 건 많이 없네요. ㅠ
암튼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 후에 놀고 있던 저한테, 제가 일하기 좋은 곳 일 것 같다는 언니의 권유로 노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점심 풍경

가장 먼저 첫 근무 날, 점심 풍경이 떠오르네요. 센터는 도시락파와 비도시락파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도시락 파는 '가위바위보'로 즐겁게 설거지 당번을 정합니다. 결국...
저는 첫 근무 날부터 3일 내내 설거지 당번에 당첨되어 즐겁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도 가위바위보에 지길래 환영 몰래카메라인가? 하는 생각도 잠시... 설거지 당번에서 벗어나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던... ㅎㅎ 뭐, 정말로 설거지를 하기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계속 진다는 게 믿을 수 없었죠... ㅎㅎ
암튼 그 이미지가 굳어져서 다들 제가 설거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사실 저보다 '가위바위보'를 못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ㅎㅎ

신입의 일상

음, 그리고 처음 와서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자연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노들바람도 읽고, 교장샘 책도 읽고, 장애인운동 관련된 책도 읽고... 첫 한 달 동안 책을 참 많이 읽었네요... ㅎㅎ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하나 난감했지만, 다른 분들도 저한테 와서 이때가 좋을 때이니 즐기라고 말씀 해주시기도 했고, 저도 이 느긋함을 즐기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3, 4월에 날씨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낙산공원에 산책도 자주 가고 혼자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ㅎㅎ 해화 주변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연도 자주 하고... 젊은이들도 많고... 날씨도 너무 좋고, 벚꽃도 만개하고... 노들은 정말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남아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수업

매주 목요일에 노란들판 분들과 함께 수화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수화를 배운 적도 있었고, 그 때 즐겁게 배웠던 기억이 남아서 배우게 되었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복습을 잘 안하면 바로 까먹지만...

ㅠ 청각장애인 분들과 유창하게 소통하게 될 날을 위해 열심히 배우려구요!

아, 그리고 5월부터는 인권교육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아직 수업을 한 번 밖에 안 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마무~~으리

노들에 온 지 이제 3개월... 벌써 4개월에 접어들었네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센터 이전 개소식을 비롯해서 인권영화제, 420, 송국현 씨 장례, 얼마 전에 있었던 노들주점을 비롯한...

제가 조금 느리게 가는 사람이라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아직도 매번 까먹고 엉터리 실수를 많이 하는 허당 코디이지만, 업무에도 그리고 노들에도 천천히 물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그럴 수 있겠죠?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 속에 함께하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의 인연들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이학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노들에 발을 들인 김선아예요.

나이는 많고 정신연령은 가르치는 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정도 ㅎㅎㅎ 그런 제가 신입교사라니... 아니 이전 정교사죠. ㅎㅎ

'노들'은 지인들을 통해 있던 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한번도 와보지 못했던 공간이었죠. 전장야협 사무국장이니 당연히 교사를 해야한다는 교장샘과 전임자 금철샘(지금은 비마이너에서 하기로 활동하는)의 꾀에 빠져 덩석 한다고는 했죠.

전장야협 업무를 익히느라 10월 중순부터 노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로부터 2~3개월이 흘러 12월이 다 되도록 참관수업은커녕 야학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조금은 불안했어요. 할 수 있을까? 괜히 한다고 한 건 아닐까? 장애인운동에

고민

대해서도 아니 장애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누굴 가르친단 걸까? 그러다 12월에서 1월 사이에 진행된 연구수업 동안 집중적으로 참관수업 및 과정을 열심히 이수했죠.

그때 수업을 참관하면서는 아차 싶더라구여. 고민은 더 깊어졌구여...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수업을 잘하시는 거예요.

전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말을 듣고 필요를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데 말이죠.

고백하자면 전 여기 오기 전엔 '노들'이라는 이름과 장판의 대표 '박경석' 교장 샘의 이름 석 자 알고 있는 게 지식의 전부였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문외한.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차별에 저항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일해보고 싶다는 맘을 가지고 모르는 건 많지만 그저 열심히 하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전엔 학원 강사(초등, 중등 수학 강사)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가르치는 일 하나는 자신 있었어요.

그 외 업무적인 것은 기계치, 컴치에 나이 많아 힘도 부족, 활동가로서 미숙함 투성이네요.

하지만 '그냥 돈벌이' 말고 '활동'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 제게 이 노들과 노들샘들은 일로도 마음으로도 도움과 힘을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덕분에 처음에 든 걱정애 비해 일을 차차 해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장애인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이분들과, 노들과 함께 오래 오래 활동하고 싶다는 맘이 들더군요.

지난 비마이너 창간 4주년 행사할 때, 노들야학 학생 준수 씨가 썼다는 '살아남아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는 그렇게 제 책상 앞에 다짐으로 붙어 있어요. 노들에 온 지 6~7개월이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곳은 제게 일하는 공간 이

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어요.

제 수업은 국어 2반. 선심, 옹호, 수빈, 유리, 명선. 청솔 1, 2반이 섞였죠~ 시작할 땐, 저도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약간의 장애를 지니고 있어 장애인 학생들과 다를 바 없으니 노력하면 된다였어요. 학생들은 노력하고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었죠. 지금 제게 학생들은 '그냥' 친숙해요~ㅎㅎㅎ

수업에선, 아직 배울 점이 많고, 학생들의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가르치기보다 배운다는 말을 어느 곳보다도 실감하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보다 학생의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수업도 해야 하고요.

노들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야학 '노들'을 얘기했네요. 야학 신입교사 아니 이제 정교사인 저를 소개해야 하는데 그만큼 저를 소개하기보다 제가 어떻게 노들에 녹아드는가를 소개하는 게 더 낫다 싶게 저 혼자로는 너무 부족하네요.

잘할 자신, 정말 없어요. ㅠㅠ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해주신다면 노들을 아는, 노들과 함께하는 분들, 상근·비상근 야학선생님들 모두와 학생분들이 도와주시면 "살아남아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들에 "감사합니다."

‘노란 들판’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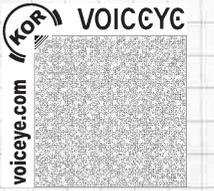
내가 처음 노들을 알게 된 건 EBS 지식채널을 보고 나서부터이다. 휠체어를 끌고 작업장에 가서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를 하시던 한 남성분. 피디가 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럼 피디님은 왜 사시냐고 답변하던 한 여성분. 그 분들을 영상에서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왔다.

그리고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야학에 가겠노라고.

그 다짐은 작년 1월에야 지킬 수 있었다. 나는 준호 선생님의 청솔 2반 수학 수업을 보조하며 야학 수업에 어림없이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꼬박 1년 만에 노들 정교사 자격증을 쥐게 되었다. 수여 당시에 아마 허세 돋는 말도 한 것 같다. 이 땅에서 ‘노들이’ 사라질 때까지,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열심히 교육하겠다고.

그렇게 다부진 자세로 청솔 2반 생활수학을 담당하게 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월요일 1교시에 학생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생활수학’이라는 수업 자체가 정해진 교재도, 교육과정도 없었기에 장단점이 뚜렷한 수업이었다. 잘하면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못하면 이도저도 산만하게 흘러가는 수업이 될 터였다. 다행히 수업 첫날에 학생들께서 각자 원하는 공부를 말씀해 주셨고, 나는 다소 긴장된 상태에서 열심히 그분들의 말을 기록하였다.

기다리던 두 번째 수업시간이 왔다. 나는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한 듯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수학책과 핸드폰을 꺼냈다. 1차시 수업의 목표는 거리 어렵하기 및 단위(km, m)익히기였다. 네이버 지도를 켜서 학생들의 집과 야학 간의 거리를 재고, 서로의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보았다. 처음에는 눈을 반짝이던 학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초점이 흐려지시더니, 끝날 때쯤 되니 몇 분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이건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책하며 또 궁금하신 건 없냐고 여쭙보니, 새로 오신 차미 님이 시계의 시침, 분침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다. 훗, 그거야 자신 있다며 다음 수업을 약속하고 야학을 빠져 나왔다.



대망의 세 번째 수업. 학교 자료실에서 내 몸통만 한 시계를 킁킁대며 들고 야학에 도착하였다. 학생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수업을 시작하였다. 비장의 시계를 꺼낸 순간 내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다. 시계를 설명한 지 한 오분쯤 흘렀을까? 차미 님은 시계에 마음이 떠나신듯 시큰둥해 보이셨고, 나머지 학생분들은 이미 난 다 볼 줄 아는데 너무 쉽다는 반응이었다. 이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 학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다. 명색이 교사라는 사람이 학생의 기초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수업을 진행하나 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몇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은 ‘맞춤형 수준별 수업’이었다. 아무래도 연산능력을 키우면 수학수업 때 이해력이 높아질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다. 다행히 학생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수업보조를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기에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같다.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온 지 4년차. 나름 교육에 관심 많고 고민도 많이 해보았다고 자부하였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노들에 뛰어들니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노들 안에 내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불완전한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노들이라는 공간. 월요일 근무가 끝나고 주린 배를 움켜쥐며 노들로 향할 때,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죄송합니다) 병기 님의 주름진 미소가 내 발목을 잡는다. 영애언니가 스승의 날에 수줍게 내미신 빨간 양말도 내 발에 곱게 신겨져 있다. 내가 불펜을 훔쳐갔다면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시는 남옥언니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게으른 나는 노들로 향한다.

가끔 지인들이 묻곤 한다. 노들야학은 어떤 곳이냐고. 나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 물음에 다양한 답변을 한다. “응, 성인 장애인분들이 공부하는 곳이야.”, “장애인권 투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야.” 오늘날의 저상버스와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노들 투쟁의 산물이었다는 걸 얘기할 때면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가장 와 닿았던 답변은 이것이었다.

“응, 사람 냄새 나는 곳이야.”

야학의 밤이 저물고 나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품으로 간다. 그 아이들에게도 이 ‘냄새’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교육과 탈교육의 경계에 펼쳐진 노란 들판에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부대끼며 살고 싶다.

진심이 아닌 가짜 글



이사 후 3주 후.

in 2013. 3. Webzine

하루 종일 정리하다 쉬다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책꽂이가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은 그냥 꽃아놓고 종이랑 공책이랑 다 쓴 거 버릴 거 버리려고 하나씩 하나씩 봤다. 종이 앞뒤로 쓴 것은 버리고 한 면만 썼던 종이는 이면지로 쓰려고 한쪽에 처박아놓았다. 공책 하나씩 다 쓴 거 있나 봤어. 보니깐 시설에서 쓰던 공책들, 야학에서 쓰던 공책들 있었어. 반만 쓰고 반은 남아있고, 정리는 하지 않고 그 공책들을 읽고 읽었어. 다 읽지 못하고 정리를 했어.

내가 공책에 있는 글 하나를 그대로 써볼까 해.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썼던 글인 거 같은데, 내 글씨는 맞는데 내가 쓴 글은 아닌 거 같고... 내가 시설에서 글 많이 써봐서 아는데 좋게 쓴다고 썼는데 그래도 공책에 누가 고쳐준 흔적이 있어.

센터판의 시작

알아도 감흥 없고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 마지막 이야기

지난 더운 여름에 팽팽 재향원 친구들은 8월 4일부터 5일까지 충북
러산 화양 청소년 수련원 화양계곡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팽팽 북
지관에서 다니는 언니 오빠들과 항상 누워만 있던 중증방 친구들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 침식을 했습니다. 점심은 먹은 후에
난타를 했습니다. 지도자 선생님들의 말씀 따라 음악에 박자를 맞추
어서 했습니다. 난타가 끝난 후에 래프팅과 물놀이도 했습니다. TV
에서만 보았던 래프팅을 직접 타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래프팅 끝난
후 신나는 물놀이도 했습니다. 물놀이 시간만큼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놀이 후에는 목욕을 하고 저녁밥
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기자랑과 캠프파이어도 같이 했습니다. 노
래도 부르고 춤도 뭉쳤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피
곤했는지 우리들은 일찍 끝나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산책과 이
침밥을 먹고 신기한 마술을 봤습니다. 신기해 하면서도 친구들은 마
술의 비밀이 뭘까 하면서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경품 추첨도 했는데
저도 선물을 받아서 동생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너무 즐겁게 놀았
던 우리들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달콤한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
음 갔던 우리들의 1박 2일 캠프는 아무 사고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끝.

놀고들 자빠지고 있네. 행복한 시간은 개뿔... 저 글은 내가 썼긴 내가 썼는데
진심으로 쓴 건 아니고 가짜로 쓴 글이야.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상실이지. 근데
큰일이다... 아무리 글을 읽어봐도 놀러 간 기억이 없어. 난타, 래프팅 타는 거,
물놀이, 캠프파이어, 마술, 경품 추천해서 내가 받은 선물... 받은 선물을 동생들
한테 선물한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째 이런 일도 다 있네.

사라진 기억은 억지로 찾는 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찾아서 뭐하려고? 좋았던
기억도 아니면서... 찾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글 괜히 읽었나봐. 또 며칠 고민하
게 생겼다. 내 성격 참 이상해... 별 거 다 고민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2번의 질긴 인연으로 팔자
에도 없는 소장 노릇을 하는 나에게 아주 많이 엄청난
임무가 주어진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
원사업의 공고가 홈페이지에 뜬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30
여 곳의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자치구에 한 센터
씩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2013년) 1년
사업이 아니라, 3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떨어지면 3년 동안은
기회가 아예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큰 기회이자 모
험이었다.

하지만 센터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내부적인 어려움으로는 좁은 사무공간을 장애인극
단판(현 장애인문화예술관, 이하 문예관)과 같이 쓰
다 보니 내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자립
생활센터에서의 실무 경험이 대부분 적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다. 그 부분에서
는 부담감도 컸지만 차라리 아예 백지상태의 상황
에서 처음부터 내 뜻을 많이 반영시키며 하나하나 함
께 만들어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약 1년 반

이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지만,
투덜거리면서도 늘 내 뜻에 잘 따라주는 활동가들에
게 감사함을 느낀다.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외부적인 어려움도 컸는
데 이미 성북구에는 우리 말고도 2개의 장애인자립
생활센터가 더 있었다. 한 센터는 성북구에서 10여
년 동안 터를 닦아온 S센터, 다른 한 센터는 원래 마
포구에 있다가 그곳의 박 터지는 경쟁을 피해 살짝
넘어온 M센터이다.

마침 서울시에서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자치
구당 1개가 아니라 2개의 센터를 지원한다고 했었고
성북구도 그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충족되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만들어진 지 2년도 안 되는 신생
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이 된 지 3달도 안 되는 내가
그 두 센터를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부담감은 의외로
컸다.

물론 전 센터들에서 활동보조 코디네이터, 권익
옹호팀, 행정지원팀을 거치면서 쌓인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어쩌면 센터의 운명이 걸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 신청은 정말 커다란 도전이었다.

우선 사무국장 역할이었던 좌동엽 샘과 역할을 나누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진행했다. 나는 나름 숫자에 강했으니 예산 부분을, 사업 내용 부분은 사무국장과 활동가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작성해 나갔다. 일주일 넘게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3년짜리, 예산 규모 5억 4천만원의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을 했다는 뿌듯함보다는 과연 이 계획서가 다른 센터들의 계획서들을 제치고 채택이 될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다.

사업계획서 말고도 부수적인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구청에서 사무실에 직접 나와 시설 점검을 할 때는 입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쨌든 성북구청을 거쳐 서울시에 서류들을 접수 시키고, 약 한 달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선 센터판과 문예판이 함께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월곡동 일대를 살살이 뒤지고 있었다. 센터 지원 사업 외에 서울시 장애인복지계정사업, 성북구의 시정참여 사업 등에도 야심차게 지원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을까? 한창 이사 갈 곳을 사

무국장님과 살펴보고 있었고 시간은 막 오후 6시가 될 즈음이었다. 센터판 카톡방에 메시지가 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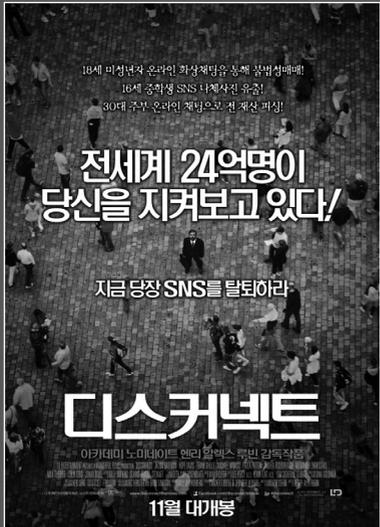
바로 인터넷으로 접속해보니 정말 우리 센터판의 이름이 34개 센터 중에 시비 지원 센터에, 포함(34개 중 4개는 국비, 시비 지원, 나머지는 시비 지원)되어 있었다. 이사 갈 곳을 같이 둘러보던 사무국장님에게 알려드렸더니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뭔가 해냈다는 안도감과 희열, 고생문이 훤히 열렸다는 공포감(?)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10명도 안 되는 작은 단체의 책임자로서 첫 관문을 무사히 넘긴 것도 의미가 크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서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해 고민했던 것들을 비교적 (활동가였을 때에 비해) 자유롭게 반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되었다. 물론 센터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많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겪었고 그로 인한 경험들이 단단하게 쌓이면서 점점 더 내실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이 모자라고 해야 할 것도 많다. 우리 활동가들과 함께 성북구에서 부족하고 조금은 어설픈 점들을 채워간다면 우리 센터의 슬로건이 단지 슬로건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답답하고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여,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 뛰는 세상을 꿈꿔라!' :)





‘딜레마에 빠졌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니 더 나아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선택해도 원하는 결론과는 거리가 있지만 결론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 디스커넥트(Disconnect)란 영화가 있다. 제목에서 이미 주제와 소재가 드러나는 영화다. 인터넷, SNS 등 광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촘촘하게 연결되어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어 있는, 친밀해지기도 쉽지만 위험해지기도 쉬울 수 있는 현대인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 연결망 속에서 한편으로 각각의 개인들이 얼마나 진실과 허구의 경계선에서 서로를 주고받는지, 욕망과 책임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롭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네트워크는 우리의 관계망을 더 확장시켰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우리는 더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관계’를 위하여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도구를 부여받은 현 시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상 관계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의 사회에 대한 감독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각 등장인물의 존재가 네트워크와 현실의 경계를 깨고 드러날수록 긴장감은 커지고 다양한 딜레마가 펼쳐지지만, 우리들은 결국 관계 속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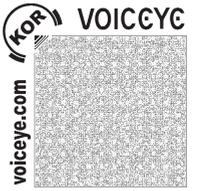
활보상담소 이야기에 갑자기 왜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감독의 주제의식, 또는 감독의 못 다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니다. 이 영화의 중심 내용과는 별개로 나에게 다른 측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각각의 등장인물이 처한 딜레마 상황이었다. 성공에 대한 욕망과 지켜주고 싶은 책임 사이에서의 갈등,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임에서 오는 갈등,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결과를 떠나) 처벌을 할 수도 용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갈등, 문제의 원인을 계속 밖에서 찾았으나 그 원인은 어쩌면 결국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의 갈등 등 영화 속에서 다양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등장인물들을 바라보며 그 갈등의 내용보다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동질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내 모습에 오버랩이 되었던 것이겠지.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를 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이 항상 분명한 정답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대답해야 한다. 어제 내린 답이 맞았다고 오늘 또 정답을 내릴 것이라는 법은 없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A가 답일 수 있겠으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B가 답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이용자의 입장을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인지 활동보조인의 입장을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항상 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더 자세한 이야기를 곁들이면 이해하기 좋겠지만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니 이해해 주시길) 우리가 생각하는 이용자의 권익과 이용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권익이 다른 경우도 있다. 우리의 판단이 더 적절할 수 있겠으나 그럴더라도 이용자 본인의 생각을 무시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어쩌면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한 가지 차원으로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곤란한 지점은 항상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상황 속에 처한다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결론을 만들 수는 없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연결자라는 간단한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더 전문화되어야 하겠지만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는 어쩔 수 없이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 정말 - 어렵다.



긴급

: [명사] 긴급하고 급함

✦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긴급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

한 포털 검색창에 '긴급'이라고 치면 긴급이 들어간 몇 개의 단어가 나열된다. 긴급지원, 긴급출동, 긴급피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등... 매우 중요하며 시각을 다룰 만큼 몹시 절박하고 급하다는 뜻의 '긴급'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말들이 지금의 사회에서 얼마나 둔감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8년 동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획일적이고 무료한 생활을 하다가 자신만의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한 명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왔다. 정확히 말하면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복귀를 위해 연습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이라는 곳으로 나왔다.(노들센터는 이러한 체험홈을 2곳 운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요소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줄 활동보조인이다.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로서는 당연히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였고, 동사무소에 '긴급활동지원'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그가 들은 이야기는 '긴급활동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바로 제도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 때문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긴급지원 신청 사유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요양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위의 내용 중 **마지막 문장에 함정(?)**이 있었다. 그는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였으나,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니 갑작스러운 퇴소가 아니라 긴급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활동보조인이 아니면 외출하는 것도, 음식을 하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은 권한이 없고 단지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뿐이었다. 사람보다 지침상의 문구가 더 중요한 것인가. 긴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계속 반복된 전화통화에 지쳤는지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그를 만나보기로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결국 그는 '긴급활동지원' 대상자가 되었다. 그나마 의식 있는 담당자를 만나서 다행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 정부에서 가난한 예술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게 매달 1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3 ~ 8개월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2011년 지병과 생활고 끝에 생을 마감한 한 작가의 죽음이 배경이 된 것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청을 받고 3달이 지나서야 1차 발표가 나가는 하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등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제대로 기준조차 못 잡고 있는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 사업에 사람들은 쓴 한숨을 내뿔어야 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긴급해야 할 것들에 하나도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설령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해도 말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졌다. 누군가의 실수였든,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불순한 의도였든,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음모였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다. 일단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점점 바다가 삼키고 있는 배 안에서 사람들을 구조해야 했다. 지휘체계의 누군가가 진정으로 '긴급'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수많은 목숨이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촌각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에 승객들이 믿고 있었을 선장과 승무원들은 무엇을 한 것인가. 해양경찰은 왜 승객을 뒤로 한 채 승무원 구조에 몰두했으며, 민간업체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인가. 언론사는 왜 통제와 조작에 앞장섰고, 대한민국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유가족의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

나는
활동보조인
입니다

활동보조인 이경민

통기타 하나 들고 떠돌던 기억

던 것인가. 무엇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무엇이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인가. 그 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들은 급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목요일. 우리는 또 한명의 생명을 하늘나라로 보 내야 했다. 송 - 국 - 현. 3급 중증장애를 가지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20년간 살다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성동구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장애인이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공간으로 생활시설과 다르게 1 ~ 3명이 각자의 방을 쓰면서 생활한다)으로 나와 자립을 준비하다가 원인 모 를 화재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실려간 지 나흘 만에 운명.

장애등급 1-2급만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제도 때문에 장애 3급이었던 그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 었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그는 화재가 나기 사흘 전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활동보조 긴급지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후 면담 신청 과정에서 장애등급심사센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 며 면담을 거부했고,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결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살게 된 것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정말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고 만 나서 얘기하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걸 뿌리친 장애등급심사센터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한 사 람을 방치해 버린 것이다. 화마가 온 집안을 뒤덮는데도 자신의 힘으로 침대조차 벗어날 수 없던 그를. 누군 가 불길이 치솟는 집의 문을 열어 누구 있느냐고 소리쳐도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던 그를.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감'이라는 말로 자신과 그 수족들의 직무유기를 덮으려 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며, '긴급'하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정도 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이를 실험하는 것 같은 일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생명보다 우선인 것은 없으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유로운 삶을 찾아 지역사회로 나오길 희망할 것이며, 어떤 누군가는 긴급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정부에서 마련한 긴급지원이 간절할 수도 있으며, 어떤 누군 가는 생명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모든 이들에게 이 사회가 진정 긴급하고 시급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관 서기현 소장님의 활동보조를 맡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소장님 곁 에서 지내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리숙한 손길로 소장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잦은 실수에도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며, 처음치곤 괜찮다며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만 그럴 때면 소장님께서 매번 "활보가 디스야!" 하며 웃어주셨지 요. 네,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소장님께 특별한 활보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ㅎㅎ 그래도 감사드리는 마음 항상 변치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 소장님 제 마음 아시죠? ㅎㅎ

그리고 보니 제겐 나름 뜻 깊은 활동보조 지원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통기타 하나 들고 로망 찾아, 사람 찾아 떠돌곤 하였는데요. 한참 힘든 시절 집에만 있는 것이 정신만이 피폐해져 도저히 못 있겠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 다닐 곳을 수소문하여 혼자 봉사공 연을 다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깊은 산 속에 있었던 지적장애 아이 들이 머물고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정말 깊은 오지에 있던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이 아팠는데 그 당시 여 러 가지로도 놀람의 연속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워낙 밖에서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특히 지방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열악함은 아무래도 서울보다 더 좋지 않음을 이제는 더 잘 알 수 있네요. 그렇게 생소하게만 보이는 모습들에 애써 웃으며 반가움의 표 시였는지, 처음 본 사람의 방문이 썩 달갑지 않았는지 유난히도 원장님께서도 아이들의 난리법석을 다 독이는 모습에 난감해 했던 제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네요.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2주년]

제 1회 분홍배문학상 공모전

그런데도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그렇게도 정신이 없던 분위기가 노래의 시작 사인을 보낸 것도 아닌데, 마치 전부 기다렸다는 듯 어느새 삼삼오오 둘러 앉아 저를 바라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노래를 부르던 이내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토록 누군가와 소통을 나누면서 눈치를 볼 것 없이, 순수히 나는 노래를 부르고 내 앞의 사람들은 노래를 들어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던 자리가 얼마나 있었냐는 생각을 말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그만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찾아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뜻을 소통을 나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도 꽤나 지나왔고, 사실 그때 이후로 또 같은 계기를 찾을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활동보조인이라는 일은 그때 그 기억을 되새기는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이지요.

물론, 지금도 항상 제가 해야 할 몫의 일은 지키면서 계기를 찾아야한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현재 소장님 곁을 지키면서 보고 느끼는 일들은 그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보람을 얻고 배움을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장님을 만난 것이니 제게 정말 큰 운이 닿게 되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센터판, 문예관에서 소장님 활보를 맡은 순간들부터 많은 관심에, 또 얼마나 많이 챙겨들 주셨는지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며 한마디만 더 쓰고 물러가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얼른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투를 빌겠습니다. 투쟁!



광화문 농성 2주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36.5도의 온도를 가진 사람이 만나 365일을 만들었고 그 날들이 벌써 두 해가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서 함께 공간을 지키며 만났던 친구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건넵니다. 함께해왔던 사람들에게, 아직 이 공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아직 스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편지. 당신의 마음의 인사를 보내주세요.

<분홍배 문학상>은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외쳤던 가난이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함께 살아가기 위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공모된 작품들은 많은 사람이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추후에 홍보물과 2주년 광화문 농성 총회 또는 그런 모임 등을 통해서 발표되며, 우리의 투쟁의 기록에 소중한 자료로 쓰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공모주제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 가난 · 빈곤 · 장애 · 소수자 · 차별 · 투쟁 · 인권 가리어져 왔던 혹은 우리의 길 위의 이야기 혹은 마음의 이야기 등 모두 환영입니다.

2. 공모부문 /분량 및 작품 수

| 수필(에세이)부분 | 분홍배트윗 부분 |
|-----------------|---|
| 한 편 이상 A4 2쪽 내외 | 분량 / 작품 수 자유 (텍스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자유롭게 그림, 사진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3. 응모자격

• 남녀노소(성 정체성 및 지향 불문)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을 지지해주는 분들 누구나 가능.

4. 상금내역

• 수필(에세이 부분) 당선작 1편 100만원(중, 50만원은 광화문농성장 투쟁공과금으로 쓰입니다.)
• 분홍배상(구체적인 사항 미정,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

5. 일정

• 접수 : 7월 14일 ~ 8월 10일 / • 심사 : 8월 10일 ~ 19일
• 발표 : 8월 20일(전장연 홈페이지&공동행동 페이스북&빈곤사회연대 홈페이지에서 발표) • 시상 : 8월 20일(농성 2주년 보고대회에서)
※ 일정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모 방식 및 문의

• 온라인 dact@hanmail.net 메일 제목에 반드시 [분홍배 문학상 공모전 접수]로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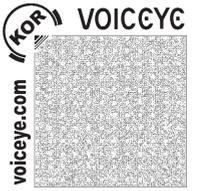
7. 기재사항

• 이름(닉네임), 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선택 장르

8. 유의사항

• 응모작은 순수창작물에 한하며, 모방 또는 차용, 타 공모전 출품작으로 확인되면 수상을 취소합니다.
• 응모 작품 수 및 수준에 따라 시상상을 가감 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상작 및 추천작의 저작권, 사용권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 귀속됩니다.
• 다만 2차 저작권(번역 출판권, 영화화 · 연극화 등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고, 확정 후에는 동 수상작품을 저자의 작품집 또는 저자의 전집에 수록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에도 작품집의 표제(수상작 작품명)와 중복되거나,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작 작품명을 수상작가 작품집의 서명(書名, 표제적)으로는 쓰지 않기로 합니다.
•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주최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안녕하세요? 인권연극제 사무국장 배은지입니다.
 노들바람에 실릴 인권연극제를 소개하는 원고 청탁을 받고서야 저는 올해 1월부터 급히 달려오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인권연극제를 하자,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준비 시작!” 하고 뛰기 시작하며 과연 나는 나에게 스스로 인권연극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하며 답해 왔는가? 또 누군가가 물어왔을 때 답할 준비가 되었나? 하는 생각에 머릿칩니다.

이 참에 스스로 떠오르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해 봅니다.

1. 왜 인권연극제인가?

다시 물어보자면 이런 질문이겠구나 한다. ‘인권’을 왜 ‘연극’으로 풀려 하는가?
 뻔한 대답 하게 될 것 같아 스스로 한번도 떠올려 보지 않았던 질문. 이 질문부터 답해야겠다.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잘못하면 모호해 질 수 있으며, 사람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미루고서라도, ‘인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권리에 대한 표현과 그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이견이 없을 터. 표현과 공감과 소통의 과정을 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형태가 연극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답하고 나니 바로 다음 질문이 꼬리를 문다.

2. 누가 인권연극의 주체여야 하는가?

인권 연극의 주체는 ‘누구나’지. 모두에게 모두의 권리가 있듯이. 그러니 나의 인권, 또는 내 친구의 인권, 또는 내가 아는 누군가의 인권에 대해 ‘할 말 있는 사람’ 더 좋은 건 ‘할 말 많은 사람’ 이 그 주체

여야 한다는 생각. 그 할 말 있고 할 말 많은 사람들이 연극의 비전문가라 해서 연극이라는 이 좋은 형태의 주체에서 배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아마도 인권연극제에는 거칠게 말해 ‘퀄리티 떨어지는(?)’ 작품들이 다수 출동할 예정이다. 어떤 전문가가 또는 소위 아티스트 주장하는 누군가가 보기에 이 결과물들이 너무도 오합지졸 졸작들일 수 있으나 인권연극을 하려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 인권을 표현하는 그리고 공감과 소통을 원하는 소중한 과정이다. 이것이 인권연극제의 방향이므로 이 즐겁고 신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인권연극제를 내려 놓아야 한다. 시민인권연극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집되고 인권연극제의 중요한 역할로서 올려질 이 작품들이 바로 인권연극제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3. 인권 연극제는 연극 비전문가만이 주체?

그렇 리가. 인권연극제의 이러한 중요한 동기와 출발에 동의하는 훌륭한 전문가 그룹이 있다. 몇 년 간에 걸쳐 상황의 여러 어려움을 던고도 인권 담론을 주제로 연극을 올려온 극단들과 예술가들이 동료 가 되어 인권연극제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또 ‘할 말 많은 사람들’이 비전문가로서 작품을 제작하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4. 인권연극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

공연장 문제. 대학로에서 장애인들이 공연을 올릴 수 있는 무대 시설을 갖춘 공연장은 고사하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어려운 시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인권연극의 축제를 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학로를 내려놔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이런 답을 내렸다. 연극의 메카라 불리는 대학로 공간에서조차 장애인 접근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면 할 말 다 하는 것이다. 인권연극제는 대학로에 장애인들이 공연을 올리고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인권연극제의 공연을 보러 온 많은 장애인들이 공연 관람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상황 자체를, 그리고 주최인 인권연극제가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 그대로를 노출시키며 다음해, 또 그 다음해의 인권연극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함께 관람할 수 없는 공연장의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가능한 공연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운동의 방향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두서없이 인권연극제에 대한 생각을 자문자답 하다 보니, 내가 어찌면 바쁘다는 핑계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들을 회피해 왔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워집니다.

인권연극제,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학로에서 처음 그 발걸음을 땀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신뢰로 서슴없는 비판, 그리고 애정 어린 무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권연극제 공식 블로그 / <http://hrtfesta.tistory.com>

인권아, 학교 가자

노들야학 은전



K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참새떼처럼 재잘대던 아이들이 멈춰선다. 와, 장애인이다! 담임선생님이 뒷목을 잡는다. 그러나 그녀 역시 K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K는 낯설다.

그건 K 역시 마찬가지다. 8살, 취학통지서를 받아들고 엄마는 K를 업고 학교에 찾아갔다. 혼자 다닐 수 없는 아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엄마가 말했다. 동생 입학할 때 함께 보내주마. 그때가 다가오자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나무랐다. 동생까지 학교 다니기 곤란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 입학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K는 무엇보다 심심했다. TV를 보다 지루하면 동네를 돌아다녔다. 빈 놀이터가 모두 K의 것이었지만 하나도 신나지 않았다. 학교에 간 친구들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 꼬마들 소리만 들려도 달아나던 그 아이 *

긴 사춘기가 시작되었을 즈음, K는 멀리서 가방 멘 꼬마들이 몰려오는 소리만 들려도 방향을 바꾸어 달아났다. 엄마, 저 형은 왜 저래? 그 악의 없는 손가락질에도 마음이 훅 베이던 시절, 알 수 없는 적의를 누르느라 고통스러웠다. K는 꼬마들이 싫었다. 지금, 마흔 줄에 들어선 K가 10살 꼬마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2008년 노들장애인야학은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그해 초 '산'에서 '평지'로 내려온 야학이 야심차게 기획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야학은 15년 동안 정립회관에 더부살이로 얹혀 지냈다. 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면서도 아차산에 자리잡고 있어서 드나들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럼에도 동네에서 밀려난 장애인들은 그 높은 곳까지 꾸역꾸역 잘도 올라왔다. 2007년 야학이 정립회관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교육청은 야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30년 전 자신들이 보낸 취학통지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도 그들은 미안함을 몰랐다.

더 이상 밀려날 곳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던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회관의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대신

종로 한복판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우리는 '종로 100평'을 요구했다.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변두리'가 아니라 '도심의 한가운데'서 교육받을 권리. 15년을 공짜로 얹혀 지내다 쫓겨난 신세들치고는 그 요구가 발칙했다. 고작 40명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그 많은' 국민 세금을 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는 듯 교육청이 코웃음을 쳤다. 그 지당하신 경제관념 덕에 수많은 K들이 학교와 동네에서 밀려나 눈부신 성장의 시간을 놓쳤다. 우리는 묻고 싶었다. 장학관님께서 다닌 초등학교는 평당 얼마였는지. 그렇다면 '비싼 땅'에는 학교가 없는지. 왜 어떤 이에게는 물을 필요조차 없는 질문에 누군가는 평생을 걸고 답을 해야 하는지. 80일간의 농성 끝에 기어이 우리는 대학로의 100평 교실을 '쟁취'했다.

이제 이곳에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했다. 호시탐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밀어내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먼저 이곳의 토양이 바뀌어야 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하는 곳, K들을 추방했던 최초의 그곳, 학교로 가자.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은 그렇게 기획되었다.

* 인권강사 K 만들기 *



K를 교단에 세우기 위한 속성 코스에 돌입했다. 대학교수가 법조문을 해설하고 베테랑 인권강사가 아이들을 사로잡는 비법을 전수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K의 것이 될 수 없었다. 가슴 뛰는 혁명을 노래하기에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고, 수십 명의 천동벌거숭이들을 들었다 놔다 하기에는 그의 팔이 너무 암전했다. 무엇보다 K에게는 활동보조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았고, 아직은 글을 읽는 것조차 버거웠다. 강의 준비는 물론이고 당일 아침 활동보조와 이동까지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다. 야학 교사인 내가 K의 짝이 되었다. 1시간의 인권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K의 인생 전체가 필요했다. 우리는 오직 K만을 위한 강의안을 만들었다.

처음 중학교로 인권교육을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날부터 숙식을 함께하며 연습했다. 글을 빨리 읽을 수 없는 K는 커닝 실력이 부족했으므로 대사를 통째로 외워야 했다. 나는 밤새 그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었고 동이 틀 무렵에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K의 활동보조를 했다. 봉고차 가득 중증장애인 강사들을 태워 용역 처럼 '출동'하는 그 피곤했던 아침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 번창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지요?”

아동의 '놀 권리'로 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동들은 잠시 들어주는 시늉을 하다가 이내 찢고 까불며 권리 실천에 들어간다. 놀 권리가 금세 나의 목소리를 잠식한다. 그러다 K가 입을 떼는 순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 교실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장면이 아이들의 눈과 귀를 붙든다. 잘 들리지 않는 말을 들으려고 귀를 갖다 대고, 놓친 이야기의 빈틈을 채우려고 미간을 찌푸리고 눈동자를 굴린다. 아이들의 오감이 활짝 열린 이 틈을 타서

나는 '장애인이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같은 멋있는 말로 뒤통수를 쳐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K가 내 뒤통수를 더 자주 친다. 자기 차례인데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천장만 바라보거나, 간신히 입을 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예상에 없던 질문을 받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늘어놓는 대답이 줄줄이 반인권적일 때, 나는 밤샘 노동의 본전 생각이 난다. K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기억력은 비상하게 뛰어나고, 차별로 접철된 인생을 살았지만 인권익식은 기가 막히게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이면 좋았으련만. K는 그저 범상하다. 내가 그러하듯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생고생을 몇 년간 사서 했다. 그것은 이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차별받은 장애인 당사자를 교육자의 위치에 세우는 것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다. 살면서 나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

고, 그것들을 넘느라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응원하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머뭇거리면서도 여기까지 왔다. K가 자신을 밀어낸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어서 좋다. 어깨에 진 짐의 무게만큼 K의 삶은 땅속으로 뿌리박을 것이다. **어떤 뿌리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다. 조금씩 내려가면서 단단해지고 굵어질 것이다. 삶은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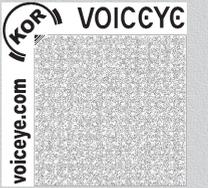
*** 사회적 약자, 주변인이라는 상징 ***

익숙한 사고의 회로를 거꾸로 돌리고 결속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게' 되고, '비정상'의 것들이 '정상'이 된다. 약자를 배려하고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익숙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깨야 한다. 약자에게 주어야 할 것은 권력이고, 주변인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의 자리, 자기 울음을 우는 주체의 자리다. 오래전 밀려나고 사라진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조합은 낯설다. 그것을 기획하는 건 상상력이지만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실천이다.

낯선 조합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인권의 힘이다. 서울 대학로 한복판의 장애인 야학은 아름답다. 그리고 중증장애를 가진 인권강사 K는 힘이 세다.

도움반에서 드리는 편지

김혜옥



김혜옥, 노들야학 창립 멤버. 3대, 5대 교사대표를 지냈으며 초등 특수교사입니다.
지난 3월, 전교 선생님들께 뿌린 메시지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런 지면에 글이 실릴 줄은 모르고 열기설기 쓴 글이니 부디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목련꽃 봉오리 맺힌 걸 보니 봄이 오긴 오나봅니다.
지난 주말에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노예제를 다룬 영화인데 인간의 자유 의지와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가... , 10...
...가... 가... 가... 가...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 안에 든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살아보고자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왜 그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몹쓸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하고 분리되어 살아야 했을까요? 왜 자신의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야 했을까요? 누가 그들을 시설에 가두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유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학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그들을 학교 바깥의 시설로 몰아넣은 것 아닐까요?

편의시설도 없고 보조할 사람이 없으니 사회에서도 같이 살 수 없다며 (우리가) 그들을 시설로 넣은

것 아닐까요?

올해 도움반에 몇 명의 친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최근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하는 뉴스가 많아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일반학교에 발걸음을 내딛는 부모님들, 일반학교에 보내 놓고 하루하루 마음 줄이는 모습이지만, 새삼 참 고맙고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권리실현의 주체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으니 불쌍해서가 아니라, 부모 조직의 입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로서 이해받았으면 합니다. 걸보기엔 똑같은 밥 한 그릇일지라도, 걸보기엔 똑같은 한 걸음일지라도 그것이 시혜나 동정이 아닌 권리로서 존중 받는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다르겠지요.

선진국처럼 공립일반학교에 통합된 장애아 한 명에 특수교사, 보조원,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가 달라붙는 복지 시스템은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조금씩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결국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의지겠지요.

흔히들 장애아의 기적을 말할 때 헬렌 켈러와 그녀를 가르친 애니 설리번 선생님을 얘기하지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고 글을 못 읽던 아이가 글을 읽게 되는 기적을 이룬다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직업도 갖지 못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기적을 일궈내는 사람들은 바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의 통합이 ‘사회적 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니까요. 글을 잘 못 읽더라도 말을 잘 하지 못 하더라도 잘 걸어 다니지 못 하더라도



라도 장애인이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또 나중에 커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소소한 일상을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노예제가 폐지되었듯, 결국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듯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저는 역사는 그렇게 진보해나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언젠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세대에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실제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장애인도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 장애인들과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 사람을 성적이나 학벌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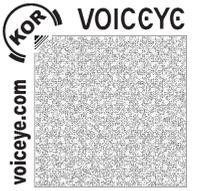
도움반 친구들이 〇〇초 친구들에게 그런 덕목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 〇〇초 학습도움반 김〇〇 드림
목련꽃 봉오리 맺힌 걸 보니 봄이 오긴 오나봅니다.

노들텃밭 농사 2년차

노들야학 명학



작년, 올해 2년차 노들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선 노들텃밭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시골의 내음이 노들텃밭의 풍경과 함께 정겹게 맞아줍니다. 내가 시골 출신이라서인지 모르지만 노들텃밭에서 풍기는 냄새, 풍경들이 남다른 느낌입니다. 마치 고향에 온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편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의 나날들을 보내고 새 봄에 땅을 갈아 씨앗들을 뿌리면 예쁜 새싹들이 돌아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대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보면 볼수록 참으로 이쁘고 신기합니다. 특히 땅은 거짓이 없어서 좋아요. 쫄만 부지런하면 땅은 우리에게 그만큼 대가를 주고, 그 반면에 쫄만 게으르면 그 표시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 땅에 심은 작물들을 보면 그 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사람들이 한 만큼 그 대가를 주는 거짓이 없는 거겠죠? 사람보다 나은 것도 자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생명력도 강하고, 신기하고 대견스럽지요?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해 먹을거리도 주고, 생각하면 할수록 좋아요.

새삼스럽게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한없이 허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잘 보존하는 것 또한 인간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의 도심에 노들텃밭이 있어서 좋아요. 노들텃밭에 가면 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런 노들텃밭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노들식구들도 가끔씩 노들텃밭에 가시어서 이런 자연들을 느껴보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도 정서적인 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거 아니다’ 에서 ‘별 걸 다 했다’

노들야학 정숙



가면 假面 [발음: 가:면]

탈! 속뜻을 감추고 겉으로 거짓을 꾸는 의문스러운 얼굴
나를 드러내는 동시에 나를 감추는 모습
장애성과 비장애성을 넘나드는 기호



변화 없는 일상에 예술가를 만났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조금은 궁금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볼지...

난 미술을 좋아한다. 어릴 적부터 그림 줄 몰라도 그림을 좋아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좋아했다. 그 옛날 생각해보면 늘 가위를 들고 종이를 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종이로 인형과 옷 가구 등등. 그러다 머리카락도 자르고 옷도 잘라보고 이불도 잘라서 혼이 났던 기억도 있다. 그때는 그것도 미술이란 걸 몰랐었다.

이번 예술가와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기하기도 했고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됐다. 내가 예술가를 만난 것도... 또 그들과 공작소를 열고 작업을 하고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내 의견이 수용되고 곧바로 작업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신기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자투리 천으로 현수막을 만들고 세계적인 명화를 우리의 코드로 약간 비틀어 패러디를 하고 공원에서 행위 예술로 표현하면서 나 또한 예술가가 되어 보았다. 그림을 배우고 전공을 해야만 예술가가 되는 줄 알았었고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기까지 했던 미술 혹은 예술을 너무도 가볍고 쉽게 재미있게 하고 보니 이제 두려움은 없다.

꼭 물감, 붓, 캔버스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어떤 형태라도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예술임을 알게 돼서 고맙다. 난 일상생활에서 미술을 찾고 말을 걸어 보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바퀴의 지도를 구상하고 탐사를 하고 턱을 만나고 분개하고... 겨울바람을 뚫고 다니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 50년을 넘게 살았고 서울살이 30년이 넘었는데 시청엘 처음 가봤다. 새로 지은 청사는 으리으리했다. 아름답다는 생각도 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자동문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100점일 텐데... 생각할수록 안타깝다. 어렵게 들어선 로비에는 전시회도 하고 있었고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지하 1층에는 서점도 있고 공연도 하고 핸드메이드 판매대도 있었다. 착한 커피도 팔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머핀도 먹고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도 아쉬운 게 있었다. 시청 정보를 볼 수 있는 컴퓨터라고 해야 하나... 손으로 터치를 해야만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터치할 수 없는 높이였다. 키 작은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어려울 듯하다. 조금만 낮춰 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다.

아픈 상태로 건강하게 살기 의료민영화가 두렵다

바퀴의 지도는 금방 끝날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계획을 짜고 시도를 해보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 뿌듯하다.

예술이라는 것은 먼 곳에 전시된 그림이 아니라 내가 또는 우리가 먹고 자고 싸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행복하다. 적어도 나는 별거 아니다 예술가 속에 이제 막 들어간 인턴 예술가라고 이름표를 달아준다. 내가 나에게...



‘별 거 아니다’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참 어려운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시작은 그림을 그리거나 목공을 하는 로맨스조, 벌꿀, 혁종을 두물머리 농지 보존 투쟁에서 만나는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뒤 카페 별골에서 노들의 명학, 호식이 수유너머R 규호와 함께 두물머리의 이들을 다시 만나 좌식싱크대를 만들고 동화를 쓰는 등 이래저래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로맨스조, 벌꿀, 혁종, 백구, 규호가 노들의 유미, 명희, 정숙, 호식과 함께 바퀴의 지도, 월간 농성과생활, 일요 쌍문회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았습니다. 이래저래 만나면서 휠체어 길 지도도 만들어보고, 같이 책 읽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광화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리모델링하기도 했습니다. 야학의 재연이가 바퀴의 지도 그림을 그리고, 노란들관에서 현수막 깃발을 출력하기도 했고요. 농성장 리모델링 때는 길공방의 구름과 철민이 함께했구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별 거 아니다’ 소개만큼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명쾌하지 못한 설명 : 유미)

지난 겨울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쳤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지만 그렇다고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마음은 늘 바빴고, 많은 일 위에 새로운 일들이 또 닥쳐왔고, 피할 수 없었다. 봄이 오면 다시 요가를 해야지, 명랑하게 춤추러 다녀야지 생각만 하다가 봄이 지났다. 광화문에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진행 중. 지하철역 안에 자리 잡은 농성장은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하다. 겨울이면 커피포트의 물이 얼고, 식물이 얼어 죽는다. 농성은,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잦다. 농성 속에서 내 역할은 비록 미미하였을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계속 느끼며 지내왔다. 우리는 지금껏 시청 광장, 구청 앞, 지하철역 안, 국회 앞 대로변, 보신각 앞 광장 같은 곳을 떠돌며 투쟁해왔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어머니는 종종 지금도 나에게 ‘이제 그 일은 그만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 공공대는 것도, 몸이 아프다고 징징대는 것도 다 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서울에서 먹고 사는 일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쯤 알고 계시기에, 백만 원 남짓한 돈으로 지내는 딸이, 그것도 데모하러 한 데만 쫓아다니고 밤이면 야학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가는 딸이 걱정스러우신 거다.

어머니가 느끼는 것이 맞다. 내 삶은 어느 면에서는 그렇다.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버는 것, 필요한 것을 갖는 것, 따뜻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과 거리가 있다. 월세 내기가 벽차서 쓴 집을 찾아 살다가 침수와 곰팡이에 시달리기도 했고, 기름값 아끼려다 호습기 질환이 만성화되기도 했다. 농성장에 있다 보면 발이 얼어붙고, 기나긴 야근에 드디어 팔이 저려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시절(?)엔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강경에도 가보고 희망버스도 타고,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싸돌아 다녔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꿈만 같은 정도로 나는 이제 내 한 몸 챙기기가 벽차게 망가졌다.

곁에 있는 선배들은 내가 아프다고 칭얼대면, 이쪽 삶이 ‘원래’ 그렇다는 듯, ‘나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거나 '나는 아침에 코피가 터졌다'거나 '피곤하면 술 한 잔 먹고 폭 자라'라고 했다. '나는 요새 너무 아파서 휠체어를 타잡아'라고, 장판(장애인운동판)에서만 가능한 이상한 농담을 하는 이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 야학 학생들은 척추측만이나 근육경직으로 나보다 훨씬 더 아파 보였다. 그래서 더 징징거리지도 쉬지도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신체손상 상태와 질병 상태는 다른 것이지만.

지난 여름 노들야학 교육기금 마련 일일호프를 마치고 알콜에 절여진 상태에서 부고를 접했다. 나보다 서너살 많은 지인의 갑작스런 죽음 소식이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일이었기에, 이것이 사실이나고 재차 물었던 것 같다. 30대에 돌연사라니. 친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오래 봤던 사람이었기에 충격이 컸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정신의 에너지도 스물스물 빠져나갔던 것 같다. 몸도 마음도 아파서 울고만 싶었고, 활동도 사는 것도 마냥 허무했다.

그리하여 한 달의 병가를 받았다. 절반은 재택근무나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 한동안은 잠만 잤다. 예전엔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다 나아있었는데, 계속 상태가 안 좋았다. 동네에 있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 내과에 갔다가 한의원에 갔다가 정형외과에 갔다가... 이 의사는 이렇게 저 의사는 저렇게 말했고, 어느 의사는 건강하다고 어느 의사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가자마자 주사부터 맞는 병원이 있었는데, 비보험 치료를 일단 해주고 보는 병원도 있었다. 의사들은 바쁘고 나는 환자라기보다 손님이었다. 길게 들을 마음이 없는 의사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어려웠다. 그래서 한 방에 종합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마음에 종합병원 건강검진을 찾아봤는데, 너무 비싸서, 깜짝 놀라 재빨리 못 본 체 했다. 특정검사를 추가할 때마다 비용도 추가됐다. 겨울이면 동상 때문에 자주 찾았던 동네 한의원의 한의사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며 약을 써보는 건 어떻게냐고 했다. 이 와중에도 이 젊은 사람의 머릿속엔 약이 얼마가요?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스스로 처지가 참 딱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공상스럽게 하는 직장 때려치우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직장 의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다. 불안정한데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조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고 최저임금은 기본으로 확보하고 있다. 소수의 계급을 재생산하는 신의 직장이 아닌 한, 우리 사회는 지금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처해있기에 어딜 가나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은가. 물론 지금보다야 돈을 좀 더 구할 수 있는 '직장'에 갈 수도 있겠지만, 노들과 직장은 내게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나는 지금의 일을 선택하면서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행복 속에 있다고 느낀다.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좋고, 오래

건강하게 지속되면 좋겠다. 그리하여 경찰이 소환장을 날리고 물대포를 쏘는 건 큰 걱정이 안 되는데... ^^;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나나 주변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은 좀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치료를 받거나 어떤 약을 먹으면 안 아플 수 있는데,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 말이다.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귀에 따가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야학에서 의사단체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진료나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의 욕구는 대부분이 의료비 지원이었다. 환자손님들로 가득한 병원에서 장애인환자는 대체로 시간을 까먹는 손님으로 취급 받는다. 장애인환자의 몸이 낫선 의사들은 MRI 진단이 필요했지만, 가난한 환자들은 검진비용에 놀라 그냥 돌아올 뿐이었다. 의료가 민영화되면, 의료가 더 노골적으로 돈벌이가 된다면, 우리 야학학생들 같은 장애인 환자나 나 같은 가난한 환자는 병원에 발붙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들 말대로, 민영화로 의료 경쟁력이 갖춰지고 의료기술이 더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 몇몇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확률이 높다. 이는 지금도 이미 그렇지 않나. 이런 현실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아픔만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

광화문농성 500일이 가까워오는 지금, 농성장엔 고인의 사진액자 다섯 개가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김준혁 씨의 영정.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 의료 현실이 어떤지 잘 보여준다. 그의 죽음은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죽음으로 나는 또 한 번 아팠다. 영정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나는 아팠다. 이런 죽음이 이제 그만 되었으면, 정말 멈춰졌으면 한다. 살기 위해 버둥대는 우리의 투쟁 속에서 이런 죽음은 너무나 쓰다.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건강'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한 해 내내 나는 어서 안 아프길 바랐지만 내 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일이 참 어려웠다. 몸도 마음도 침잠한 가운데 고통을 있는 대로 지켜보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삶에서 건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다.

나는 앞으로도 아픈 것을 발견하고 아픔을 느끼고 덜 아프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것이다. 아픈 상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나는 이런 걸 고민한다.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말부터도 모순인데 가능한 일이긴 할

까? 아픈 것이 한순간 멈춘다면 어머니 말씀대로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다른 짓을 한다고 안 아플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아픈 시간을 건디는 것은 무지 힘들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약도 지어주신 노들진료소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여기서 끝내려니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건강할 수 없다'라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 참언하자면. 요즘 나는 요가와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다. 종종 빼먹지만 이만 하면 꽤나 열심히. 나를 죽기 살기로 하는 중이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잘 안 된다. 그래도 이 수행(?) 덕분에 많이 살아났다. 몸이 안 받쳐주면 활동도 못 한다는 어렵지도 않은 생각이 뒤늦게 뼈저리게 왔다. 나 혼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 모두가 다양한 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건강'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요즘 내 고민이다. 더욱이 그야말로 다양한 신체가 공존하는 장애인운동판에서 '건강'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삶속에서 고민해나가고 싶다.

※2013년 12월 26일 열린 <'의료 민영화' 도대체 너는 무엇이니?> 토론회에서 노들진료소 비장애인 이용자 대표로 유미님이 발표한 글입니다.

HIV 감염파티

노랑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몸은 하나의 몸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몸이 있고 하나의 신체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둘 다 갖춘 몸도 있다. 인종에 따라서 혹은 장애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몸도 있다.

식물의 종은 사람의 몸보다 더 복잡하다. 꽃이 피는 식물이 있고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이 있다.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이 있으며 땅이 아닌 수중에서만 자라는 식물도 있다. 그렇게 각자 다른 종의 식물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만들어진 생태계를 토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식물이란 없다.

그런데 우리들의 몸, 각자 다른 모습의 몸들은 왜 국가에 따라, 성별에 따라, 가난과 취향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갖게 될까?

어린 소년들이 납치를 당해 소년병으로 끌려간다. 어린 소녀들이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시집을 간다. 어린 소년·소녀들이 성 관광의 상품이 된다. 출산과 노동의 반복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이 있다. 성적취향에 의해 사형당하는 남성들이 있다. 장애를 이유로 평생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66 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의 몸에 다르게 매겨지는 가치와 폭력에 노출되며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는 건 무슨 까닭일까? 다른 종들이 하나의 생태작용을 하는 자연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는 인간들이 다른 몸의 모습들을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기를 요구하며 돌아가는 인간 사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 가지의 답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의 존재 방식이 자연과의 방식과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2013년 노들야학 모꼬지는 화합이 아닌 분열의 상징이었다. 모두에게 자유이용권이 지급 되었지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자와 놀이기구를 탈 수 없는 자들에게 1박 2일의 에버랜드는 너무 다른 시공간이었을 것이다. 롤러코스터의 운동에 따라 사람들이 내뿜는 소리를 들으며 휠체어에 앉아 눈으로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에버랜드는 놀이공원이 아닌 놀지 못하는 공원이었을 테니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자였던 나는 간만에 타는 놀이기구가 재밌었지만 내 몸은 나에게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오래 지속되는 감기증세, 발열과 전신의 피로감. 그러니까 이미 나는 HIV 양성 확진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 자신이 성관계에 있어 콘돔과 같은 안전한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내 몸이 예전과는 다른 상태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 분열의 상징이었던, 누군가에게는 쓸쓸한 경험이었던 에버랜드에서 나는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HIV 1차 양성이라는 피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시 채혈을 하러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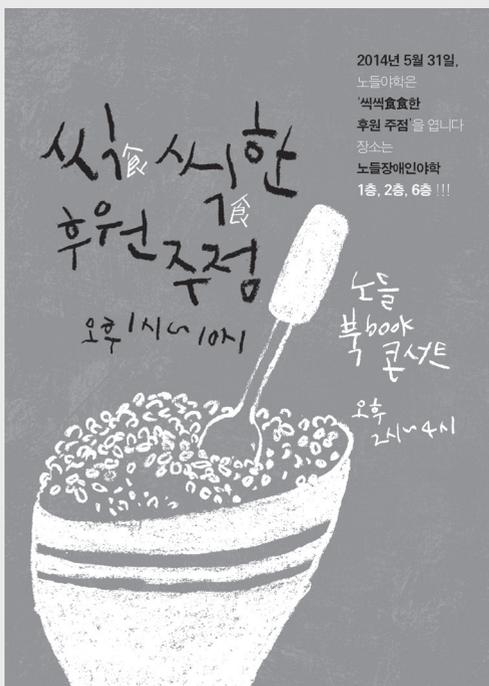
였다. 내 세포에 침입해 어딘가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는 분열과 증식의 과정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2013년 11월, 에버랜드에서의 노들 모꼬지처럼.

2013년 12월 9일 나는 광화문 농성장에 인접한 한 병원에서 HIV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나왔다. 가장 먼저 광화문 농성장에 있던 친구에게 확진 사실을 알렸다. '아니겠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던 친구. 퇴근길에 갑자기 인도에 주저앉아 울었다는 나의 누나. 네가 1차 양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던 친구들. 지금 생각해 보면 감염 사실을 마치 타인의 문제처럼 얘기했던 나의 태도에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키진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들에게 고마움보다 미안함을 더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

파티는 다양한 친구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회화, 미디어아트, 음악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람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이 있었다. 지금 다시 말해도 부족한 고맙다는 말을 여기에 꼭 적어야겠다. 확진 그리고 파티 이후로 6개월이 지난 내 감염인의 삶은 이따금 일상에서 육체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많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약의 부작용 탓인지 느닷없이 두통과 어지러움이 동반해서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뿐이 아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날 두 눈에 담아 둘 사람들도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웃다가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누군가도 웃다가 잠들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다시 하게 될 두 번째 HIV 파티도 더 재미있게 준비해야지.

씩씩한 후원주점

노들야학 신행



1년 만에 공포의 후원주점이 다시 돌아왔다.

작년에 장소를 노들야학과 센터가 있는 동승동 1층 주차장으로 바꾼 것이 소위 대박을 쳤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의자와 테이블이 없어 손님을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말이다. 하지만 작년의 성공은 올해의 부담이 되었다. 작년 기준으로 수입 예산을 이미 잡아버렸고(작년 수준의 돈을 벌지 못하면 적자가 나는 상황), 급식을 시작하며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의 수익을 내야만 했다.

수년간 후원주점팀을 맡으면서 올해만큼 하고 싶지 않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앞서 이야기한 돈 문제가 가장 큰데, 아무래도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후원주점은 사업의 성과가 엑셀 파일의 숫자로 찍 정리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따라서 나에게 점수표가 매겨지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에게 티켓 판매에 대한 독려 아닌 독촉을 해야 할 때도 많고, 돈돈돈 이야기로 입에 달고 살다보



니 어떨 때에는 마치 보험회사 영업부장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우리에게 투쟁만큼 예산 또한 중요한 것을……

호프 준비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그간 해온 활동가들의 “감”이 있어서일까? 홍보, 티켓 판매, 안주 및 술의 양, 공간의 구성, 공연 등 뭐 하나 막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무언가 안일하게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도 가끔 들었지만 몰려드는 피로감에 금세 무시해 버렸다.

3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9일 마지막 회의까지 총 여섯 번의 회의를 거치고, 900명의 노들 사람들에게 전화연락을 드렸으며, 452개 단체에 공문과 함께 티켓을 보내드렸다. 노들 150여명의 학생, 교사, 노들 다른 단위 활동가들이 쭈뼛거리며 수줍은 듯 지인들에게 티켓을 건넸다. 거짓말처럼 1억여

원에 달하는 티켓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 이제 멋지게 행사를 치르는 일만 남은 것이다.

대망의 5월 31일 오전 9시에 테이블과 의자들이 배달되면서 행사준비는 시작되었다. 자원활동가 분들이 60여 분이나 와주셔서 100개가 넘는 테이블 세팅이 5분 만에 완료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주방팀은 밀작업을 하고, 서빙팀은 빌지를 자르고, 테이블 번호를 붙였다. 주차장 밖에는 대형 현수막들로 분위기를 내었다. 오후 1시 정각 하자센터 분들의 남미풍의 신나는 길놀이로 시작된 후원주점은 흥은전 교사가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의 북콘서트로 이어졌다. 여러 가지 공연이 어우러지고 여기저기 주문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오늘 손님이 없어 망하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물론 행사진행이 원활하게만 될 리는 없었다. 주차장 아래



에는 소극장이 있는데, 그곳 공연시간과 우리의 공연시간이 겹쳐버린 것이었다. 하자센터의 우렁찬 북 소리에 깜짝 놀란 그들은 초면인 나에게 바로 '우리 공연시간에 시끄럽게 하면 고소하겠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무척이나 급박했다 보다. 서로의 공연시간을 지켜주기로 약속한 이후에야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물론 나중에 한 번의 먹살잡이와 욱지거리는 있었지만..... ^^;;

일찍 찾아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점의 하이라이트는 11시가 다 되어 시작된 야마가타

트웍스터의 공연이었다. 그의 수제자들과 함께한 파티는 가히 광란의 파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로 술에 취해 마구 춤을 추는 모습은 어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하였다. 나는 정리하는 일을 핑계로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남의 차 뒷 창문이 깨지고 서로 먹살을 잡고, 노들에 실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수 명 나오긴 했지만 여차저차 행사는 끝이 났다.

사건 사고가 없는 행사는 노들야학의 행사로는 어울리지 않지 않는가?(난 처음에 내가 맡는 행사마다 왜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는지 억울하기도 하였으나 생각해보면 평화롭고 좋은 평가만 나오는 행사는 21년 동안 없었던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복 많은 노들이, 좋은 사람들 덕분에, 올해도 무! 사! 히! 후원주점을 치러냈다는 것 아닐까?**

마지막으로 꼬꼬미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후원주점에 올 수 있게 놀이방을 멋지게 꾸며준 지예, 10시

간 넘게 한 자리에서 목청 터져라 '서빙이요~'를 외친 명희, 공연팀과 지하 소극장의 충돌을 중재하며 전전공공했을 준호, 일당백의 역할을 해주신 힐링 자원봉사팀 박준길 쌤, 당노라는 지병을 안고 술 상무 역할을 톡톡히 해주신 교장쌤, 처음이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열렬히 티켓을 팔고 조직해 준 신입교사 가나와 호연 쌤과 송우영 쌤, 땀을 뻘뻘 흘리며 사진기를 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 승천, 학생들의 티켓 판매를 전담한 노들야학의 자랑스런 총무 혜진, 제일 어렵고 힘든 주방에서 하루

우리, 자립했다!



과 현수막을 쿨하게 술 몇 잔으로 대신해주신 노란 들판 공장 여러분들, 아픈 몸을 이끌고 열정적인 댄스까지 선보인 은별, 모든 뒷정리를 묵묵히 해 주신 정종훈 님, 그 밖에 제 기억력의 한계로 위에 언급되지는 많으신 분들과 늘 노들과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를 고박 든든하게 버텨준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 돈 관리와 후원물품을 판매 해 주신 진석형과 민희 누나, 팀장 아닌 팀장 역할을 맡아서 제가 뒤에서 숨을 수 있도록 고생해주신 민구형, 복종태아와 함께 사무실에서 갖은 일들을 봐준 현정, 가장 눈에 띄는 분홍티셔츠를 입고 첫 후원주점을 열심히 꾸려준 신아 쌤, 세상의 어떤 후원주점에도 없는 멋진 메뉴판을 그려준 미술반 정민, 쉽지 않은 환경에서 고급한! 북콘서트를 만들어준 에피쿠로스 선생님들, 첫 데뷔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책 내용을 전달해준 영란 쌤, 북콘서트의 주인공이면서도 하인처럼 일했던 은전, 콘서트 하나 있는 주차장에 전기를 대준 현역 출신 기술자 정구형,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신나는 음악의 세계를 알려준 하자센터, 수백 잔의 칵테일을 선사한 광호, 친척까지 모셔온 조직의 달인 명학형, 노들야학 행사 사회로 데뷔한 노량사와 혜민, 서툰 솜씨지만 나름의 정성(?)을 다하셨던 지호, 승하, 경윤, 오랜만에 나타난 다음 학기 수업 우선예약교사 정우준, 예쁜 왕관을 쓰고 빌지 관리를 해 준 경영, 티켓



노들센터는 노들야학과 10년을 붙어살았다. 명륜동 빌라에서 여기 동송동 유리빌딩 2층까지 함께 살았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아마 야학은 센터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겠지? 그나저나 노들센터는 유리빌딩 2층에서 6층으로 이전하느라 더 고생했다. 차라리 다른 건물이라면 이삿짐 차를 쿨하게 부를 수 있었을 텐데,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하는 이사라 짐을 전부 우리가 날랐다. 그런데 글에 넣을 사진을 고르다 보니 어째 이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킁킁거리면서도 웃고, 헉헉대면서도 웃고

있다. 그래, 아마도 생애 처음 '내 방'을 갖게 된 설렘 때문이겠지. 우리도 이제 그토록 원하던 이용자, 활동보조인 전용 상담실도 생겼고, 프로그램 일정을 잡아놓고, 공간을 선점하지 못 해 그 어려운 '일정잡기'를 다시 해야 했던 지난날을 회상할 전용 프로그램실이 생긴 덕분이겠지. 2층에서 공간사용은 눈치게임 같은 거였다. 숫자를 먼저 외치지 못하거나, 동시에 외치면 진다.

이사를 준비하고, 이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손에서 내려놓지 않은 지연언니, 짐 날랐다, 청소했다, 돈 계산했다, 홍길동 민희언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시키는 것만 하겠다던 조현수, 꼼꼼 또 꼼꼼 하나라도 놓칠세라 신경을 곤두세운 소장님, 지방 교육 갔다 몸살 나서 와보지도 못한 라나, 그리고 사진 찍는다고 쿡쿡거리고 이 인간들 구경하느라고 재밌었던 나까지 손발 맞추느라고 다들 고생 깨나 하면서 우리는 친해졌다. ㅎㅎ

2층에서 짐을 몽땅 빼왔지만, 6층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야학과 함께 쓰던 물건들을 공간이 분리되면서 전부 마련해야 했다. 상담실에 놓을 테이블, 프로그램실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 음향기기는 기본이었다. 물을 마시려니 컵이 필요했고, 밥을 먹으려니 수저가 필요했다. 밥 먹고 화장실을 가니 휴지가 없었다. 노들은 우리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의 부담을 나눠 짊어지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 분들은 노들과 가까운 곳에 계셨고,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셨으며, 우리가 그 모습을 감지하자마자 우리보다 더 급속도로 6층 공간에 빠져들고, 우리보다 더 자주 6층 공간을 드나들기 시작하셨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에어컨을 가져오시고, 어느 날은 빔 프로젝트를, 또 어느 날은 세면대와 변기를 가져오셨다! 이렇게 빨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6층은 바뀌어갔다. 그 분들은 노들이 2층에 들어올 때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우리건설의 이상엽님과 이번 공간마련을 하면서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사를 준비하는 자세부터 이삿짐을 꾸리는 것, 짐을 나르고 재배치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각 활동가들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때는 2010년 내가 노들센터에 오고 난 후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몇 개월로 기억한다. 아마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서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도면, 전기공사, 술 상무 등 진정한 멀티맨 정구, 땀을 한드럼은 쏟은 윤사마, 이사를 하면서 입이 트인 선우언니(짐 정리가 빨리 안돼서 갑갑한 나머지), 이삿짐센터 직원 병익한 재환, 그 옆에 조수 광호, 걸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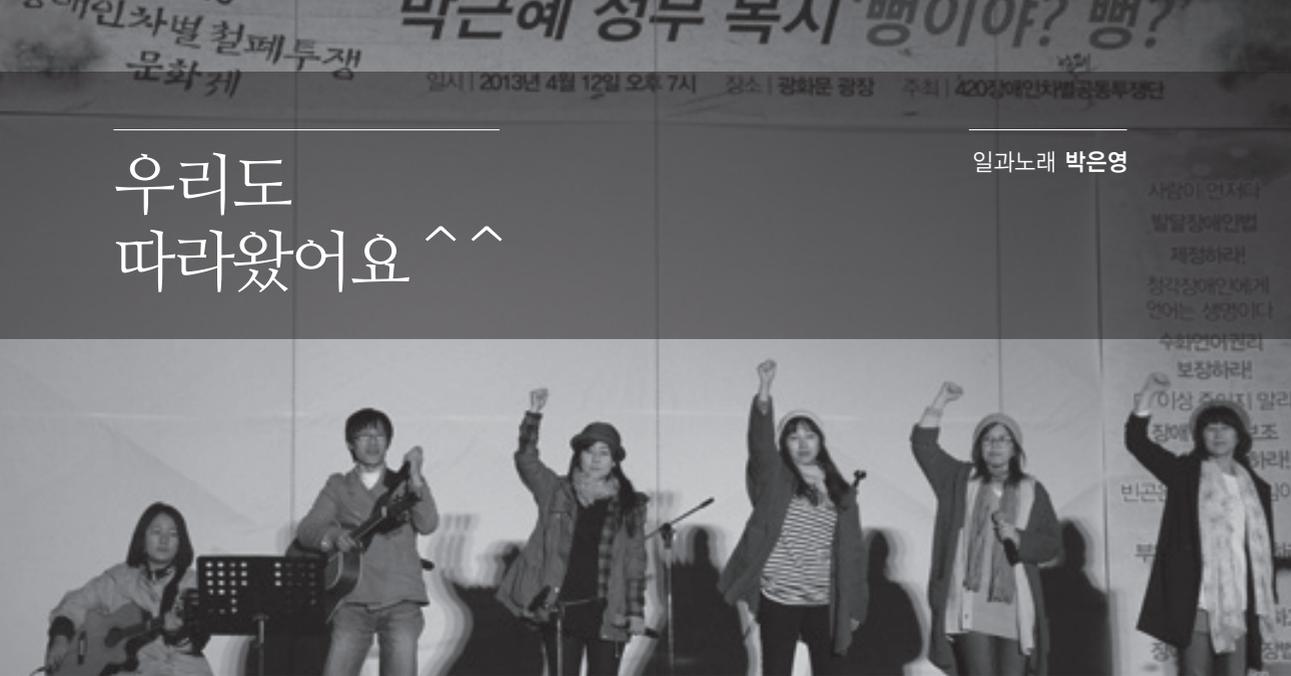


이상엽님이 소개해주신 김종길님이다. 정말 귀하디 귀한 인연이다.

이렇게 동승동 유리빌딩 6층은 노들센터의 '첫' 자립공간이 되었다. 자립 후에도 여전히 노들야학 6층으로 소개되지만, 언젠가는 온전히 노들센터로 소개되겠지? 될까? 될 거야~ 되자! 노들센터가 '자립'을

하기까지 글로 다 못 할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어디 자립이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겨우겨우 자립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아직도 수두룩하게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자립했다!



우리도
따라왔어요 ^^

일과노래 박은영

사랑이 언젠가
발달장애인들
세상하루
청각장애인에게
언어는 생명이다
수화언어권리
보장하라
이상 주이지 알라
장애 보조
하러!
반공...
무...
장...



안녕하십니까? 일과노래입니다!

일과노래는 각자의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화공동체를 꿈꾸며 하나가 된 단체입니다. 작년까지는 노들야학 2층에서 정기 모임을 갖다가 올해 초 노들센터가 6층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갖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 6층에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노들과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은 저희에게는 무한한 행복이지만 노들센터 선생님들께는 참으로 죄송합니다. 방음공사 하는 동안 자장면 한 그릇에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끔찍한 본드냄새를 견뎌주시고, 기계치에 가까운 우리에게 복사기 쓰는 법을 알려주시고, 연습 때마다 울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천사 같은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일과노래는 노들센터가 앞으로 어디로 이사를 가든 함께할 것을 저희끼리 약속했습니다.

광화문 농성장 600여일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표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4계절을 넘어 또다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동안 농성장 한 편에 늘어만 가는 영정사진을 보며 슬픔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더 힘 있는 투쟁을 몸소 보여주시는 농성장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 앞에 저의 투쟁도 그러했는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아침에 송국현 동지를 보내며 피를 토하듯 울고, 그럴 힘이 남아있을까 싶은데도, 저녁의 또 어딘가의 투쟁 현장에 계시는 우리 노들식구들 정말 존경스럽습니

다. 늘 핑크가 날 듯 날 듯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지원하는 이가 있어 절대 비워지지 않는 광화문 농성장의 기적 또한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다만, 연일 세심한 투쟁에 우리 동지들 건강이 버터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우리 선생님들 골병 든다 빨리 폐지하라!
그 투쟁에 저희 일과노래도 함께 하겠습니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한” 김동경 활동가 인터뷰



청한이 걸어온 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는 87년 민주화 항쟁 속에서 1990년 2월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첫 발을 내디뎠으며, 2003년 2월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이름을 다듬었습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는 “참 의료인 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모임이며, 그간 민중 건강권 확보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대표적 사업으로, 산업재해 요양에 한의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이루어낸 한의 산재 요양 기관 지정 합법화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계 최초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고 2002년 한의계 연대활동을 통해 한방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대전, 부산에 지부를 두고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한의사, 한의학의 자리 매김과 국민건강권의 올바른 실현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국내외 제반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격주 일요일 노들에서는 장애인 독립(한방)진료소가 열립니다. 들풀 이후, 청년한의사회 청한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이 동송동 노들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있었군요. 오랜 역사를 함께하고 있고 노들과 자주 만나는 이 공간이 궁금했습니다. 사무국 김동경 활동가를 인터뷰합니다.

>>> 청년한의사회, 청한은 역사가 오래된 곳이었군요. 그렇다면 원래 청한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NGO(비정부단체) 공부도 했습니다. 주변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온 것도 있고 KYC(한국청년연합)에서 인턴 했을 때의 일상이 좋아서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릴 때 사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가 있었는데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고 예전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로망도 있죠. 동물과 환경을 좋아했지만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향이 부산인데요. 열심히 깨우친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 고민 끝에 우연히 환경영화제에서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관한 영화를 봤고, 관객과의 대화 내용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청한에 왔습니다.

한의학 쪽은 잘 몰랐지만 청한에 오니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찾기보다 국민건강권을 같이 생각하다 보니 제가 소비자 쪽임에도 납득이 가고 청한이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에 동의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청한에서는 주되게 정책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감동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 최근에 청한에서 했던 정책 사업에 대해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작년 공공의료 확대의 차원에서 첩약을 의료보험이라는 형태로 들어오게 하면서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게 하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한의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차이가 있었지요. 작년에 잘 되었으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도 올해에 더 잘 늘어날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아쉬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참여한 대립이 있었던 거죠.

>>> 내부적으로 분쟁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첩약이 보험으로 되면... 의약분업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예전에 약국에서도 첩약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 올해에도 추진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의료민영화 반대입니다. 작년 청약의 의료보험 시행에 관해 한의계 쪽 정책은 진통을 많이 겪어서 후유증이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다른 정책을 한다기 보다는 큰 범주에서의 의료민영화 반대를 하고 있고 연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격주 일요일 동송동 노들에서 함께 진행하는 장애인독립진료소 때도 뵙지만 투쟁 현장에서도 자주 뵙는 데요.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110명 정도 있습니다. 매년 총회가 열리는데요. 전국 조직이라서 중간지역인 대전지역에서 열립니다. 청한은 연대 사업을 한 축으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축으로는 한방정책사업 일이 있습니다. 다른 한의계의 단체들 중에서도 정책,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편입니다. 의료연대는 부문단체 연합이랑 함께하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동송동 노들에서 함께하는 장애인독립진료소에서도 청약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장애인들 진료할 때 청약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어떻게 건강권을 보장 받았는지에 관해 자료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청약으로 장애인들 건강을 지원했다는 것을 자료로 정리하여 서울시에 요구하고 건강권에 대한 다음 정책에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 중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한방진료의 필요성을 정책적 요구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 현직 한의사 선생님들이 주되게 하시는 거죠?

한방연구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구요. 학생들이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과 독립진료소에 활발히 활동하시는 지민 선생님이 주되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죠.

>>> 처음 데모의 현장에 나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떨림으로 혹은 거부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거부감이 있거나 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너무나 험악하게 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을 보는 것은 사실 많이 무섭습니다. 활동하셨던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럴 때 나는 도망간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

마다 마음이 사실은 비슷할 수 있겠지요. 저는 집회를 하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 깃발이 찻찻 나오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촛불집회에 갔었는데요. 참여하지는 않고 뒤에서 보기만 했었거든요.

요즘은 추모제나 문화제에 주로 갔었고 청한에서 함께 다녀서 거부감 없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회하는 것이 너무나 먼 다른 것들이었는데 집회의 투쟁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한 신념이 바뀌는 것이, 몸살 하듯 몸이 아팠고 그 신념이 바뀌니 집회에 가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사람 사는 것.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나의 친구들이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집회 가면 개운하고 사람의 힘을 얻고 합니다.

특히, 깃발들도 멋있구요.

>>> 청한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의료민영화 반대가 있을 텐데요. 진주의료원처럼 공공의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보건의료 쪽으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공부합니다. 부족한 게 아직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일 하는 것이 정신없을 때도 있지만, 연대 활동하는 것이 재미있고 좋습니다. 사무실에 보건의료 각 단위 활동가들도 함께 있거든요. 함께해서 좋은 거 같습니다.



노들은 사랑을 신고

노들야학 명학

# 야학 동문, 김두영님을 만나고-

## · 가물가물한 초기 노들야학 시절 ·

**명학**● 먼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영**○ 감사하긴요. 제가 감사하죠.

**명학**● 두영이 야학에 있었을 때가 몇 년도였죠?

**두영**○ 1993년도에 처음 노들야학이 개교할 때... 개교 멤버였죠. 그래서 개교할 때 처음 교사대표를 맡았고.

**명학**● 그때 개교 멤버가 누구였죠?

**두영**○ 심귀황. 그리고... 이름들이 가물가물해요. 얼굴만 생각나고 이름들이...

**명학**● 그때는 반이 고검반(고등 검정고시반)이랑 중검반(중등 검정고시반)?

**두영**○ 그렇죠? 거의 대검(대입 자격 검정고시)은 없었고, 고검반 중검반. 고검반도 거의 없었죠. 중검반이 대부분이어서.

**명학**● 그때 장소가 정립회관에?

**두영**○ 정립회관에 탁구장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시작했구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교재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우리가 각자 대학 가서 후배들한테 중고등학교 때 썼던 책들 후원받아서 했구요.

**명학**● 교과서?

**두영**○ 교과서 같은 거, 참고서나... 우리도 돈을 건었죠? 필요한 교과서나 초등학교 교과서는 구하기 힘들어서 돈으로 샀고... 그때 힘들었던 게 정립회관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명학**● 산비탈.

**두영**○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구의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초입까지 들어갔다가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 올라가면서 지나가는 차도 올라타고, 안 걸리면 끝까지 올라가구요.

**명학**● 특히 겨울과 여름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두영**○ 아 그렇죠. 그렇죠.

**명학**● 그때는 주로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두영**○ 별도의 후원금이라는 건 없었어요. 전부 교사들이 각출해서 사용했구요. 또 학생분들이 또 주섬주섬 많이 주셨어요. 저녁에 식사라도 하면 또 학생분들이 많이 사주셨고.

**명학**● 아 생각난다. 학생은 대부분 돈을 벌고, 정립전자에 다니고. 반면 교사들은 대학생들이었지.

**두영**○ 그렇죠. 교사들은 돈을 안 벌고 그때는 교사들 100%가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 아닌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한 3, 4개월 있다가 안신연 교사가 지금 박경석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왔죠.

## · 초기 노들야학의 뜨거운 감자 ·

**명학**● 노들야학이 시작할 때 그 당시 쟁점 같은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두영**○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에 대한 재교육이 쟁점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쟁점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 측면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또 장애인권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었지만 출발 자체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워낙 많을 때였으니까... 그분들한테 학교교육을 시키고자 하고, 학력을 취득하게 하

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구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면서 또 공부도 하고, 근데 규모가 지금처럼 크지가 않을 때니까 검정고시 준비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명학**● 그래서 검정고시 보면서 성과도 많이 있었나요?

**두영**○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 · 노들야학에 오게 된 사람들 ·

**명학**● 그럼 옛날에는 학생 모집이나 교사 모집 같은 건 어떻게 했나요? 노들바람도 없었을 텐데.

**두영**○ 학생 모집은 지역신문이나 그런 걸로 했구요. 교사 모집은 거의 인맥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있는 후배들을 데려왔고, 안신연 선생님은 명지대 사회복지과. 또 심귀황 선생님은 한양대에서 데려왔구요. 그런 사람들이 많

이 채워왔죠. 교사들은 늘 부족했구요. 오랫동안 그렇게 남아있지 못 하니까. 다 자기 삶이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명학**● 주로 어떤 아르바이트예요?

**두영**○ 저는 장애아동 과외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구요. 저도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

으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서 형들한테 술 많이 얻어 먹었어요.

**명학**● 다들 그래요. 왜냐면 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버는 학생들이니까 학생이 교사분들한테 술 사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었죠.

**두영**○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뭐 학생이라는 생각보다는 인생 선배들이니까 거의 뭐... 제 상담도

많이 했었죠. 교사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형, 누나들이었으니까 제 문제도 얘기하고 또 형들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들이며, 생각을 들으면서 또 서로의 고민들도 많이 얘기하면서 서로 많이 배우고.

**명학**●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노들야학이 창립하면서 치열하게 얘기 많이 하고, 서로서로 교류가 많았을 때가 그땐 거 같아요. 지금도 똑같지만.

· 학생한테 배우는 교사, 교사 밥 사주는 학생 ·

**두영**○ 지금도 똑같은 거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모이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사실은 대학생활 내내 데모도 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참 공부 안 했는데, 야학 다니면서 공부 많이 한 거 같아요. 형들한테 내가 미안해서. (야학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왔던 거 같은데 오면 에너지도 쌓이고 또 재밌었어요.

**명학**● 그때는 우리가 야학 내에서 교사, 학생인데, 지금도 똑같지만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예요. 교사가 학생한테도 줄 수 있고 그 반대로 학생이 교사한테. 근데 교사들은 주로 학생보다 나이가 어린 상황인데도 서로가 줄 수 있다는 건 좋았던 거 같아요.

**두영**○ 인생 자체가 배움이잖아요. 배움이라는 게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거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학교 교육이 문제가 이런 거죠. 교사에 의해서 배움이 전달되지만 하는 거예요. 교사도 배워야 되는 거고 나이가 많다고 해도 또 나이 어린사람한테 배울 게 있는 거구요.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한테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어릴 때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철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후회들은 많이 남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서 17년간 해왔는데 교사생활하면서 많이 느껴요. 아, (그 때) 잘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할 때였죠. 사실 전문가도 아니었고,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었고. 후회가 많아요. 잘할 수 있었는데. 철이 없어서.

· 1993년 개교멤버가 보는 2014 노들야학 ·

**명학**● 지금의 야학을 두영이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요?

**두영**○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구요. 지금 말했듯이 검정고시와 함께 장애인으로서 잃어버린 어떤 권리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투

쟁하는 모습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또 야학이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명학**● 노들야학도 주로 검정고시를 봐야하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꼭 교과서 아니라도 야학 교사들이 교사마다 수업 방식들이 다르거든요. 꼭 교과서로 수업한다는 것보다는 다르게 교과서 외적인 책으로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두영**○ 검정고시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절대 아니구요. 검정고시를 하더라도 성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한글을 깨치는 문해교육을 하더라도 성인들한테 맞는 교재를 만들어야하고 또 검정고시 이외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것들이 뭐 문해교육이든 문화예술교육이든 인문교양교육이든 시민참여교육이든 그런 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 것들이 배움에 있어서 편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야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죠.

· 에피소드 ·

**명학**● 자 그럼 야학에 있으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말해주세요.

**두영**○ 제가 있을 때 학생 중에 한 분이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명학**● 정립전자에서?

**두영**○ 예예 그렇죠. 저희들하고 술 먹고... 그 다음부터 형님들하고 술 먹는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름대로는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야학을 하면서 제가 그나마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야학이 아

니었으면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명학**● 그때 진짜 진지한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지금 같으면 10시 딱 되면 끝나요.

**두영**○ 우리는 집에 안 갈 생각을 하고 했었죠.

**명학**● 지금은 그때가 많이 그리워요.

**두영**○ 지난 세월이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죠. 뭐가 좋아요. 지금이 더 좋구만. 하하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 변방연극제 임인자 예술감독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노들야학 교실에서 인권연극제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낮 12시 40분. 같이 회의를 하던 장애인문화예술관(이하 판)의 안수가 판에 후원해주고 계시는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임인자님을 붙잡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안수** ● 판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인자** ○ 우선은 2012년도에 변방연극제를 판과 같이 했던 인연으로 후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극단과 작업을 했던 것은 (제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2001년도인가 '돌몸짓'이라는 작품으로 당시에 <끼판>이라는 이름의 단체에서 변방연극제에 참여했었어요. 문예회관(현재 아르코 예술극장)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끼판>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게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고, 나중에 아마 4~5년 정도 있다가 소극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장애인단체 분들과도 어떤 연계랄까? 근데 운동으로서의 연대보다 예술적인 연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년에 「돌몸」이라는 작품으로 유선 씨랑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 인연으로 표미라 선생님이 같이 해보자고 연극제에 제안을 주셨었어요. 당시에는 사실 변방연극제가 예산배분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판하고 같이 작업하게 되어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문래예술공장'에서 있을 공연을 다른 팀에서 판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면 그때 할 수 있는 데가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연극제에서 작품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관계 맺기를 하는 편인데 그렇게 같이 작업을 했던 인연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 관심들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작업들이 돼 가고 있는지 공연도 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후원을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금액이구요. 우선 제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택한 겁니다.

**안수** ● 후원하는 단체로서 판, 그리고 판이 속한 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

는 판, 그리고 노들에 대해서 얘기해주시실 수 있을까요?

**인자** ○ 노들에 대해서는 우선 대학로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랄까 큰 응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변방연극제'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극에 대한 시선이랄까 이런 게 주류적인 서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 자신은 연극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류, 제도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제도권에서 연극이 얼마나 세상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도 계속 의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변방연극제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 노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동지랄까, 벗이랄까, 노들이 좀 더 벗 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야학 공부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응원이 돼요. 사실 많이 의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문화예술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술활동을 하는 주체로서의 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동시에 활동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발표를 위한 활동보다는 '좀 더 세상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예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인권연극제도 같이 준비하면서 극장이라든지 장애인예술단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슬금슬금 얘기해보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전면으로 나서기 위한 우리만의 광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장벽을 넘고 돌을 던지고 하려면 그거에 맞설 어떤 장들이 필요한데 그 장이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에 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어요.

**안수** ● 결국 그렇게 하라는 얘기군요. 아, 이거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는데?

**인자** ○ (큰 웃음)

**안수** ● 그런 것에 대해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의 말로 알아들겠습니다. 노들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인자** ○ 아, 얼마 전에 인권영화제 갔는데 노들에서 차린 부스에서 진열한 티셔츠를 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어떤 티셔츠보다 아름다운 티셔츠였거든요. 그 글자들이 꽃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건데 너무 예뻐더라고요, 직접 그리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아름다움이라랄까? 세상의 질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노들이 전복해주면 좋겠다.

**안수** ● 아름다움을 전복한다?

2014년 6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강경완 강귀화 강문형 강병완 강복원 강성윤 강소영 강수혜 강영미 강우선 강정자 강현욱  
강희관 고경신 고명희 고승현 고아라 고양숙 고재현 고재현 공명렬 공승룡 공태윤 락도근  
곽성자 구경민 구수준 구승기 구현아 권영숙 권기원 권미경 권병주 권영주 권윤희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혁운 권혁은 김가경 김건욱 김건형 김경숙 김경태 김관희 김광수 김근식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기호 김남수 김대희 김 덕 김도경 김도현 김도훈 김동은 김동진  
김동환 김두경 김명학 김문주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애 김민혁 김민영 김민지 김민호  
김민희 김병식 김병모 김보연 김봉석 김부연 김상희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욱 김성미  
김성현 김세영 김수경 김수영 김수현 김숙이 김승혜 김아람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욱  
김연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승 김영환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욱 김우석 김원숙  
김유리 김유미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익현 김재경 김재양 김재환 김재희  
김정규 김정민 김정옥 김정하 김중윤 김중호 김중환 김 준 김준호 김중휘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에 김지은 김지현 김진규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창배 김창보 김태욱  
김태우 김태인 김푸른솔 김학일 김학호 김한민 김현령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욱  
김혜진 김호식 김홍희 김희진 김희정 김희찬 김희현 나선영 나원진 나해나 남대호 남두형  
남민영 남지현 남효진 노미경 노상경 노현택 노혜련 동근숙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마미주 문건화 문명동 문상태 문성원 문성훈 문소리 문예진 문지의 문창배 민혜숙 박경석  
박경영 박경준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누리 박명숙 박미경 박민경 박민영 박보건 박보라  
박상일 박상호 박서희 박선우 박선은 박성옥 박성희 박세호 박수진 박시백 박신영 박애경  
박여승 박연희 박영민 박영환 박은국 박은정 박장근 박재근 박재규 박정숙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종필 박주연 박준호 박지영 박진우 박찬양 박창숙 박철우 박초롱 박태만  
박하순 박현민 박현정 박현희 박홍석 박희수 배경원 배덕민 배수자 배승천 배안나 배윤주  
배진숙 배치너 백미라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재선 백진희 변하연 서기현 서남교 서매순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미진 서민영 서민희 서봉경 서은수 서정록 서주형 서호필 석지윤  
선혜란 성정현 성창기 성희옥 손동각 손성권 손은경 손인범 손주영 손준희 손희경 송기호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창국 신복순 신봉준 신석호 신수정 신수희 신순영 신연실 신 영  
신영근 신은희 신임식 신 진 신현훈 신호근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민섭 심정규  
안건모 안문필 안민희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예스더 안인숙 안정애 안정은  
안향미 안희옥 양석주 양운근 양인소 양정화 양현준 여수진 엄재균 엄주영 엄주희 여준민  
연금순 오보람 오원주 오정자 오정희 오중환 오지은 오진아 옥 섯 우경호 우승명 원영진  
원재민 유남숙 유문수 유보배 유애리 유영순 유정윤 유창재 유혜경 유희정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두선 윤명섭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성근 윤승용 윤승원 윤 영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종술 윤준서 윤혜숙 윤호진 윤 희 이강수 이건희 이경덕  
이경아 이경훈 이경희 이광만 이광석 이광재 이금희 이기훈 이단비 이등은 이등진 이라나  
이리나 이문희 이미리암 이미영 이미정 이민규 이범민 이비함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호  
이수연 이수영 이순웅 이승민 이승범 이일찬 이연욱 이연주 이영경 이영수 이용길 이원진  
이유진 이윤옥 이윤지 이은숙 이은정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은 이제성 이제현 이종국  
이종실 이주오 이주옥 이준범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혜 이지환 이진섭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진희 이찬미 이채린 이철우 이태곤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진 이형록  
이호연 이호중 이희국 이효정 이희영 임광열 임나미 임덕심 임동근 임원택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춘학 임태중 임혜숙 장경주 장근영 장명희 장미현 장미희 장상순 장선정 장성권  
장성아 장옥란 장정환 장창완 장혜미 장효정 전권래 전권세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 옥 정규명 정금자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동식 정미란 정민구 정병순  
정상우 정선영 정선욱 정승이 정수연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균 정용훈 정우준  
정유경 정은경 정익화 정재훈 정종권 정지영 정진영 정진이 정태인 정택용 정현강 정현경  
정현숙 정현찬 정혜림 정혜원 정희덕 조경애 조미정 조복화 조사량 조성진 조수안 조승근  
조윤실 조윤정 조은미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은현 조자영 조정화 조향숙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업 좌미경 주기중 주상연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주영은 주용춘

**인자**○ 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화 돼있고 제도 위에 있고 다른 것을 상상하기 보다는 그 안에서 그 나머를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이라서 오하려 그게 더 조금... 세상이 좀 더 추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들'이라든지 '판'이라든지 '인권연극제'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그게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그 티셔츠보고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분들도 만나면서 제 세계가 좀 더 열리게 된 게 이제까지 '제도 안에서의 변방'을 생각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제도 밑에 누군가가 압사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서 그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좀 더 열리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지가 될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큰 응원이 되는 거구요. 제가 응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이지만 시민으로서의 후원하는 일이고, 예술가로서는 인권연극제에 함께 한다든지, 언젠가는 뭔가 도움이 되는 때가 오겠죠?

**인수**● 사실 인자 쌤이 저희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셔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인자**○ 아, 이번에 후원주점 티켓 왔던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요. 책(노들바람)에 티켓이 같이 왔던데요.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는걸요.

임인자 선생님은 노들 후원 주점에 오셔서 잘 먹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늦게 와서 못 보었는데... 흑흑ㅠㅠ) 바쁘신 분이어서 10분만이라도 얘기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얘기해주셨습니다.



## 후원방법 안내

### 1 후원계좌 및 물품 안내

####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 장애인문화예술관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 방식과 직접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주은아 주혜원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준희 지혜롬 진영욱 진영인 차무영 차순정 참고은치과 채이배 천성호 천종민 최경일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미은 최병진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영숙 최우영 최유정 최윤경 최윤선 최은아 최은정 최 익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찬일 최현진 최혜영 최혜원 최호연 표미라 표은혜 표희철 하경남 하금철 하 울 하정자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선희 한성완 한송희 한양재 한주영 한혜선 허보영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 창 허효재 현영철 현정민 홍건호 홍도순 홍성미 홍성호 홍순희 홍영희 홍은진 홍은진 홍주영 홍지연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성운 황승미 황정희 황진미 황해진 황혜진 황희준

### 자동이체 후원인

강수혜 고명선 구자숙 김명화 김미선 김민아 김선심 김용철 김정지현 김지연 남완승 류동훈 박경선 박단비 박윤기 박현규 백연희 서금석 송영자(향린) 신동길 안성희 양명희 오선실 윤종배 윤지형 이두혁 이한진 이현숙 이형욱(부개 성누가의원) 정대성 (주)티에이치엘 차명수 최상희 허병권 황미향 최광열차(김낙현)

### <노들로 들어온 선물>

|    |                                              |    |                                                              |
|----|----------------------------------------------|----|--------------------------------------------------------------|
| 1월 | 이승수 <사가 내게로 왔다> 외 책 4권                       | 5월 | 통통한 고양이 사장님 아로마 핸드메이드 비누<br>양경희 음료수 한 상자<br>황승리 (방울)토마토 한 상자 |
| 2월 | 이종각 다른길(박노해)                                 |    |                                                              |
| 3월 | 김현정 10인용 전기밥솥<br>다다 임혜숙 초콜릿과 사탕              | 6월 | 한상순 토마토 한 상자<br>수유너머R 비름나물, 차초기<br>책방이음 디포리 한 상자             |
| 4월 | 안정란 두유 2상자<br>다다 임혜숙 초콜릿과 사탕<br>표수연 음료수 한 상자 |    |                                                              |



팟캐스트 방송 '듣거나 말거나 노들바람'이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로 이름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꾸려갑니다. 노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장애인운동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기대해주세요. ^^



내일 아침 기자회견! 헉, 미안하지만 그대는 썩!  
며칠 후에 토론회? 훗, 친절한 그대는 택배!  
광화문? 핫, 우리 가는 길에 함께 있는 그대는,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싶으면 꼭 연락해!!

꿈꾸는 현수막 노란들판  
주문 · 문의 02-469-9101

##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전화 : 02-766-9120 / 팩스 : 02-6937-1701 / 이메일 nodeul@gmail.com

나는 장애해방을 지향하는 교육과 운동이 정서 내지 감성에 착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런 정서 내지 감성이 '장애'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애란 어떤 본래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장애는 학교, 직장, 사랑, 결혼, 운동 등등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경험하는 어떤 불가능과 관계된다.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할 수 없음', 즉 '장애'를 경험한다. 다시 말해 장애를 가졌기에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장애인인 것이다.

『살아가겠다』에서  
고병권 저, 살창, 2014

